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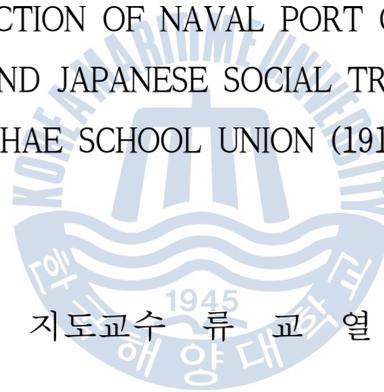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

군항도시 진해 건설과 일본인 사회의 동향
- (1911-1917) ‘진해학교조합’ 을 중심으로 -

CONSTRUCTION OF NAVAL PORT CITY JINHAE,
AND JAPANESE SOCIAL TREND
: JINHAE SCHOOL UNION (1911-1917)



지도교수 류 교 열

2014년 2월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문화학과

류 나 래

本 論文을 柳娜俠의 國際地域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위원장

구모룡

인

위원

하세봉

인

위원

류교열

인

2013 년 12 월 10 일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연구정리	5
제2장 제국일본해군과 군항도시 진해의 경영	12
제1절 제국일본해군과 군항도시 진해	13
1. 제국일본해군의 군항건설과 도시계획	13
2. 일본인 시가지 경영과 ‘진해학교조합’의 등장	18
제2절 ‘진해학교조합’의 성격	28
1. ‘진해학교조합’의 구성	28
2. ‘진해학교조합’의 활동	34
제3장 ‘진해학교조합’과 일본인 시가지 발전 방향	42
제1절 ‘진해학교조합’과 제국일본해군	42
1. 제국일본해군과 진해 시가지 발전	42
2. 진해 시가지 변화와 ‘진해학교조합’의 대응	52
제2절 일본인 시가지 발전과 함대 입항	58
제4장 결론	65
참고문헌	72

【 표 목차 】

<표1> 해군의 진해 군항 토지(시가지) 대여	17
<표2> ‘학교조합령’의 개정 전후 주요 차이점	20
<표3> 1912년 상반기 진해 무역액의 증가 상황	26
<표4> ‘진해학교조합’ 관리자(1911-1919)	29
<표5> 1915년 3월 진해의 직업별 조사	36
<표6> 함대 입항과 해군 상륙의 경제적 효과	60
<별표1> ‘진해학교조합’ 평의원 (1911-1916)	40
<별표2> 1911년-1922년 진해 인구 통계	69

【 자료 목차 】

<자료1>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	70
-------------------------	----

【 그림 목차 】

<그림1> 1911년 진해군항경역도	14
<그림2> 1912년 진해대시가발전예측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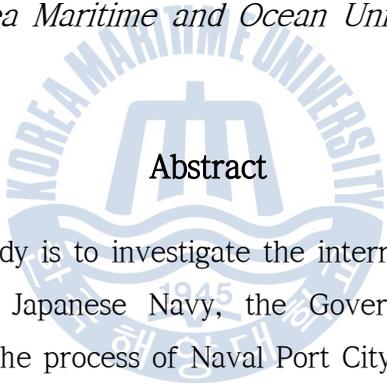
Construction of Naval Port City Jinhae,
and Japanese Social Trend
: Jinhae School Union (1911-1917)

RYU NA LA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and 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various subjects -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e Government-General, Japanese societies - shown within the process of Naval Port City Jinhae establishment run by the Imperial Japanese Navy in 1910s, while laying stress on Jinhae School Union at the same time.

Studies on Jinhae are mainly about the Imperial Japanese Navy's Naval Port City Plan and its formation. Resulting in emphasizing the Imperial Japanese Navy's active features thus relatively having Japanese society settled in Jinhae too passive or lost its further investigation.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social background of Jinhae in 1910s in various perspectives while giving attention to Jinhae School Union, which is deeply related to the Naval Port City Jinhae establishment process.

In early Naval Port City Plan period, Jinhae was divided into Naval Port Facility Area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mperial Japanese Navy and the city, forest lands, etc. outside the jurisdiction. Jinhae city was a planned town taken up 90% of its population by Japanese. Jinhae School Union was established in 1911 led by the Imperial Japanese Navy as a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o provide Japanese immigrants with all-around education. However, it performed key roles in different fields like sanitation, civil engineering, etc. Jinhae School Union had taken a role as a main administrative body in Japanese socie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Imperial Japanese Navy until the local administrations were properly set after an install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 Therefore, close examinations on management and state of the Jinhae School Union at this period would help to grasp the facts of Jinhae Japanese society.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explores the trend of Japanese society with Jinhae School Union from 1911 when Naval port was constructed in earnest to 1917 when Myeonjae (Japanese local governmental system) appeared.

First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Jinhae School Union and city management appeared in Jinhae Naval Port City Plan of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e Imperial Japanese Navy divided Naval Port Facility Area and urban districts, running direct and indirect management. The Imperial Japanese Navy conducted Land Rental Business - with first and second rents to private sectors, and third rents to Jinhae School Union, providing 240,000 pyeong of urban districts and 1,338,000 pyeong of forest areas. And so Jinhae School Union took charge of indirect management when there were no distinctive city administrations.

Secondly, Jinhae School Union was formed in support of the Imperial Japanese Navy to meet the demand of Japanese society which increased with the establishment of Naval Port City Jinhae. Jinhae where there was no settlement corporation unlike Busan, Masan, etc. took its role as an apparent administration

of the Jinhae Japanese society by conducting preparation business required by the city in financial support of relinquished lands from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irdly, the change of the Japanese Military Strategy after Russo-Japanese war relatively lowered the tactical value on Jinhae Bay. An installation of launching dept. - which was essential for long-term development of Jinhae - was consequently negated scaling down the development of Jinhae itself. The city development remained in a stalemate with a dramatic decrease in population since the investment around Naval Port City establishment was outflowed from Jinhae with an alarm of a rear admiral Kamiizumi who led the Naval Port City Plan. Under these circumstances, Jinhae School Union took full activity - having talks with the Navy Headquarters and so on - representing Jinhae Japanese society.

Fourthly, in order to activate stagnant Jinhae, fleets must be in port beforehand substantially, accompanying the city sanitation. Like this, the power infrastructure of the Naval Port City Jinhae city development changed from Land Rental Business into port entry and sanitation. Since Jinhae School Union put forth its efforts on sanitation with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e Government-General, and Jinhae Japanese society's various organizations, and since the personnel organization including its director and sub-director duplicates with those of Jinhae Sanitation Union, it is clear that Jinhae School Union functioned as a subject of Jinhae Japanese society in 1910s.

As written above, that Jinhae School Union emerged as an administrative subject of Jinhae urban districts with the Imperial Japanese Navy, the Government-General and Japanese societies planning to manage city development from early 1910s when local districts were not properly set to 1917 when it carried out Myeonjae (Japanese local governmental system), and that Jinhae School Union took the city development centering around the sanitation

based on cooperation among Jinhae School Union's own networks, the Imperial Japanese Navy, and the Government-General, are social characteristics of Naval Port City Jinhae in this perio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1910년대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 진해(鎭海) 건설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주체 -제국일본해군, 총독부, 일본인 사회- 간의 상관관계를 ‘진해학교조합(鎭海學校組合)’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의 주도 하에 진해에 진출한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이나, 그 역할은 교육뿐만 아니라 토지대여·위생·토목 등 다양한 도시제반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다. 시기는 ‘진해학교조합’이 설립된 1911년부터, 일제의 지방통치제도인 ‘면제(面制)¹⁾’가 등장한 1917년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군항도시 진해의 건설과정에 깊이 관여한 ‘진해학교조합’을 주목하면서 당시 진해의 사회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식민지 시기 한국 도시사 연구는 주로 서울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²⁾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근대도시는 일본의 식민지도시로서 도

1) 1917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령(制令) 제1호 ‘면제’ 및 부령(府令) 제34호 ‘면제시행규칙’은 자치적 지역운영에 대신하여 식민지 행정지배의 체제를 완비하려는 일제의 1910년대 지방통치제도 정비과정의 한 귀결점을 이루는 것이었다. (김동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도서출판 혜안, 2006, pp.81-82.

2)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도시사 연구 경향은 시기적으로는 전통시대보다 개항기와 식민지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여전히 지방도시보다는 서울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략) 최근에는 부산·인천·군산·목포·마산 등 항구도시들을 중심으로 근대 지방도시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급

시형성과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하였다.³⁾ 이와 같은 도시연구는 국민국가라는 민족단위의 식민지수탈론과 근대화론의 한계에서 벗어나 도시라는 지역단위로 역사를 서술한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있다.

한국 근대도시 연구는 그 형성이 일본의 제국확장과 필연적으로 연동되었다는 점에 있어 일본 근대사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근대도시의 이해에는 일본 근대사의 이해가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근대 일본은 1894년부터 10년간 전쟁을 세 차례나 경험하면서 전쟁이라는 외압과 군대라는 내압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군대에 관한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경원시되어 왔다. 이것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남북분단을 비롯하여 이른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⁵⁾로 대표되는 한미관계 등에 기인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군이 지배했던 군사 지역에 대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군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과 같은 현안으로 존재한다.

이런 차원에서 군과 그들이 직접적으로 건설하고 지배했던 군사지역으로서의 근대도시는 필드 그 자체로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식민지 군항도시는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확장 의도 아래 제국일본해군에 의해 건설되었다.⁶⁾ 그 중에서도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군항 건설이 계획된 한반도의

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변화다. (김백영, 「식민지 시기 한국 도시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역사와 현실』 No.81, 2011, p.397.)

3) 하시야 히로시(橋谷弘)는 일본 식민지 도시의 형성과정에 따라 제1유형으로 일본 식민지 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유형, 제2유형으로는 재래사회의 전통적 도시 위에 겹쳐져 식민지 도시가 형성된 경우, 제3유형으로는 대도시의 근교에 일본이 신도시를 형성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橋谷弘, 『帝國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pp.11-13.)

4) 하라다 게이이치, 역 최성환,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2012, p.7.

5)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6) 일본해군은 한반도의 진해를 제국일본해군의 군항으로 건설하고자 했을 뿐만이 아

군항도시 진해를 고찰하는 것은 조선의 식민지화를 해군사를 통해 세계사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 근대도시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해체와 자본주의 근대 세계체제가 마주한 장소라는 관점에서도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군항도시 진해의 제국일본해군과 총독부, 민간 단체의 지역사회 경영을 둘러싼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일은 군항도시 진해의 도시적 특징을 비롯한 근대도시의 또 다른 특징을 규명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군항도시 진해가 자리 잡고 있는 진해만 지역은 러일전쟁을 거치며 일제의 실질적 군항도시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⁷⁾ 제국일본해군은 러일전쟁 당시 자신들의 임시 근거지로 거제도 장목면 송진(巨濟島 長木面 松眞)을 점령하며 진해만으로 들어왔던 것이다.⁸⁾ 1907년 8월 27일에는 제국일본해군 주도 아래 군항으로 예정되어 그 경계도면과 엄수사항이 고시되었다.⁹⁾ 이후 1911년 1월 1일, 진해는 제국일본해군의 제5해군구 군항¹⁰⁾으로 지정되었고, 제국일본해

나라 대만의 마공을 1907년 1월 1일 요항으로 지정하였으며, 중국의 뤬순을 1906년 10월 1일 군항으로 지정하였다. (千須和富士夫, 「日本軍港制度の研究」, 『広島商船高等専門学校紀要 第17号』, 1995, p.91.)

7) 현 진해 시가지에서 방사상 도시형이 되어 있는 서부시가지만 하더라도 기름진 “한 들(中坪平野)” 이었다. (황정덕, 『진해시사』, 진해향토문화연구소, 1987, p.376.) 이와 같이 진해에는 제국일본해군이 들어와 도시개발을 하기 전엔 군항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 제국일본해군은 러일전쟁 발발 직전인 1904년 1월 12일, 통영군(현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에 ‘진해만방비대’를 설치하여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후, 규모가 작은 송진포보다 현재의 진해가 군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 후, 1906년 8월 27일에 진해만 전체를 군항예정지로 고시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 후 조선총독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제국일본해군은 진해의 토지를 군항 용지로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8)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 研究』, 일지사, 1982, p.341.

9)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44-347. 이는 1907(光武10)년 고종황제의 재가에 따른 것이나, 1906년 7월 중 ‘진해만과 영흥만을 군항으로 하고 그 內海에 막대한 넓이의 땅을 수용하겠다’는 일본 측 요청이 전달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44-347.)

10) 제국일본해군은 전국을 5해군구로 나누어 각 해군구에 군항과 진수부(鎭守府)를 설치하여 관할하게 하였으며, 각 해군구에는 시기에 따라 관할구역의 변경과 진수부 신설 및 폐지 등의 변동이 있었다.(千須和富士夫, 앞의 글, p.88.)

군의 군향계획 아래 본격적으로 도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다.¹¹⁾ 군향도시 진해는 일제의 군향도시 계획 아래 1910년에서 1912년까지의 3년간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며 물리적 형태를 잡게 되었다.¹²⁾

군향도시 진해를 건설했던 일본해군은 초기부터 일본인과 조선인 거주 구역을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진해 군향도시건설계획의 바탕이 된 ‘진해군향시설지실지조사보고(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마지막의 “한국인과 일본인을 격리 할 필요가 있다” 는 문장에서 나타난다.¹³⁾ 제국일본해군은 이처럼 진해 시가지를 처음부터 일본인 거주구로 건설하였으며, 원래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을 진해 시가지 외곽의 ‘덕산(德山)’ 방면으로 이주시키고자 하였다.¹⁴⁾ 이 계획은 후에 진해 시가지와 ‘덕산’ 사이의 ‘경화동(慶和洞)’ 으로 변경되어, 진해 시가지와 그 부근 11개 마을의 조선인을 퇴거시켜 1호당 45평을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¹⁵⁾ 이와 함께 1911년부터 1913년까지 진해 시가지 일본인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각각 99%와 89%에 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진해 시가지가 일본인 시가지였음을 나타낸다.¹⁶⁾

일본인 사회로 건설된 진해 시가지는 대한제국이 식민지가 되기 전, 일본해군에게 먼저 수용된 지역이었다. 따라서 1910년 총독부 수립과 함께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가 되면서 진해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이 해군과 총독부 사이에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진해 시가지의 행정주체가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부산이나 마산, 인천과 같은 개항도시에서는 일본인 거류민단이 존재하여 지방행정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하였고, 교육은 이러한 거류민단의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였다.¹⁷⁾ 그러나 군향으로 지정되며 일본인 인구가 1911년에

11) 「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五十三号・鎭海軍港境域ノ件(国立公文書館)」(1910년・칙령 제453호・진해군향지역 건),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3 02087660.

12)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58-359.

13) 『鎭海永興關係書類』, 3-8, 「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1910.1.17.

14) 『鎭海永興關係書類』, 3-8, 「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1910.1.17.

15) 杉山萬太, 『鎭海』, 鎭海印刷社, 1912, p.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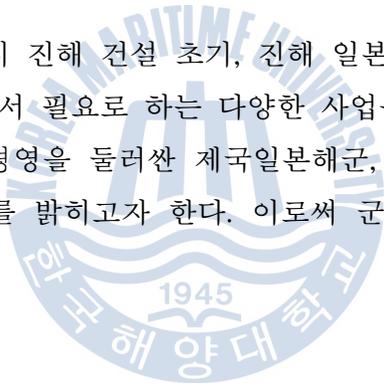
16) 1911년부터 1922년까지 진해의 인구조사표는 뒤에 <별표1>로 첨부하였다.

17) 강재순, 「1910년대 부산학교조합의 구성과 성격」,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

3,500명 이상, 1912년에 5,000명으로 급증했던 진해 시가지는 신도시로 거류민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별표2 진해인구통계 참조>. 대신에 ‘진해학교조합’이 1911년에 설립되어 1917년 ‘면제(面制)’가 성립되기 전까지 교육을 비롯한 시가지의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군항도시 진해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제국일본해군과 직접적인 군사지역 뿐만 아니라 그 군사지역의 배후지였던 진해 시가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해 건설 초창기의 진해 시가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인 사회로 형성되어, 총독부와 해군의 관할권 문제가 연동되며 행정주체가 모호했던 곳이었다. ‘진해학교조합’은 이 시기 진해 시가지에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국일본해군이 주도했던 진해만 토지대여사업에서도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가지를 대여함으로써 진해 일본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군항도시 진해 건설 초기,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교육을 비롯한 위생·토목 등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던 ‘진해학교조합’에 주목하여, 도시 경영을 둘러싼 제국일본해군, 총독부, 일본인 사회라는 다양한 주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써 군항도시 진해의 도시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정리

지금까지 군항도시 진해는 주로 일본해군의 군항도시계획과 그에 따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선행연구로 먼저 해군의 진해만 토지수용과 도시건설계획에 주목하고 있는 손정목¹⁸⁾의 연구가 있다. 1910년부터 1912년까지의 3년간 일제의 군항도시계획 아래 진해가 그 물리적 형태를 잡게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¹⁹⁾ 황정덕²⁰⁾은 일본해군이 러일전쟁을 전후로 하여 군항 건설을

들』, 선인, 2008. p.162.

18)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 研究』, 일지사, 1982.

19)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58-359.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자행한 토지 수탈 과정을 구술기록과 해군사료를 통해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러일전쟁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본해군이 진해만 지역을 군사기지화 하는 과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에서 나타난 기초적인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 다케쿠니 도모야스(竹国友康)²¹⁾는 일본해군사료를 중심으로 송진포의 ‘진해만 방비대 가근거지’에서 ‘군항도시 진해’로 변모하는 일본해군의 군항도시계획의 초기 단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해가 일본해군의 군항도시계획에 따라 그 외형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군항도시 진해의 시가지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에 주목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²²⁾ 뿐만 아니라 군항도시 진해의 건설에 대해 건축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게 된다.²³⁾ 이러한 가운데 이학수²⁴⁾의 연구에선 일국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와 한국 근대사 맥락을 고려하여 진해 군항도시 건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군항도시 진해는 주로 해군사료에 근거하여 제국일본해군의 군항건설계획과 그에 따른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군항도시 진해의 주체로서 제국일본해군이 특히 부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진해의 또 다른 주체인 민간의 일본인 사회에 대한 시각은 상대적으로 결여되

20) 황정덕, 『鎭海市史』, 鎭海郷土文化研究所, 1987.

21) 竹国友康, 『ある日韓歴史の旅:鎭海の桜』, 朝日新聞社, 1999.

22) 김선희, 「일제 강점기 진해지역 일본인의 생활상」,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허정도, 「일제에 의한 진해신도시계획의 식민성 고찰」, 『人文論叢 Vol.28』, 2011. 김선희와 허정도의 연구는 각각 군항도시계획 아래 건설된 진해에서 나타난 일본인 사회와 조선인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진해 연구에 있어서 일본인 사회와 조선인 사회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도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23) 조홍석·구명화·김정동, 「진해지역 근대건축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19 No.4, 2003.; 김인수, 「진해의 도시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건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박기식·우신구, 「진해시 도시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 시대별 경관요소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8 No.1, 2008. 이 연구들은 일본해군의 군항도시계획에 기초하여 건설된 진해의 도시 경관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4) 이학수, 「진해 군항의 탄생」, 『국제해양문제연구 Vol.7』, 2012.

었다. 군항도시 진해는 건설 초기부터 제국일본해군이 직접 경영하는 군항시설 지역과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시가지로 나뉘어졌다. 진해 시가지 건설 초기인 1911년에서 1913년까지의 인구를 살펴보면 각각 일본인의 비율이 99%와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진해 시가지가 일본인 사회였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국일본해군 중심으로 군항도시 진해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진해 시가지 즉 일본인 사회에 대해선 주목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본인 사회였던 진해 시가지는 제국일본해군의 군항건설계획 아래 1910년에서 1912년까지의 3년간에 그 물리적 형태를 잡았다.²⁵⁾ 특히 1911년 9월부터 1912년 6월까지 진해만방비대사령관에 재임했던 가미이즈미 도쿠야(上泉徳弥) 해군소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진해 시가지를 급격하게 발전시켰다. 한편, 1910년에서 1912년까지의 3년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위가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변화하는 시기로 지방의 행정주체가 모호한 시기였다. 진해 역시 관할권 문제로 해군과 총독부 사이에 논쟁이 되었다. 이 시기 ‘진해학교조합’이 등장하여 교육을 비롯한 시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가미이즈미 아래 시행된 진해 3차 토지대여 때, 제국일본해군으로부터 토지를 대여하는 동시에 전대권도 얻게 되어, 진해 시가지에 영향력을 가진 자치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군항도시 진해의 주체로서 주로 제국일본해군을 내세워왔기 때문에 진해의 일본인 사회에 대한 시각이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이로 인해 진해에서 나타난 일본인 사회와 제국일본해군의 구체적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였고, ‘진해학교조합’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못하였다. 군항도시 진해에서 총독부, 제국일본해군, 일본인 사회라는 다양한 주체가 시가지 경영을 둘러싸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는지 밝힐 수 없었던 것이다.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한반도 내 거주하게 된 일본인 거류민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주요 계기로 하며 그 수를 늘어갔다. 이후, 1905년 거류민단법의 성립은 거류민 자치의 발전과 동시에 거류지의 공공사업 확대를 이끌었다.²⁶⁾ 거

25)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58-359.

26) 박양신, 「제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Vol.2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

류민단은 교육·토목·위생·일반 공공시설에 이르기까지 관할 대상이 매우 광범위했으며, 교육은 거류민단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했다.²⁷⁾ 이처럼 조선의 일본인 사회는 거류민단이 해체되기 전까지 거류민단을 중심으로 시가지 발전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시기, 진해에는 일본인 사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거류민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에 ‘진해학교조합’²⁸⁾이 1911년에 설립되어, 식민지 행정지배체제의 정비과정 중 자치적 지역운동을 대신하고자 한 ‘면제’가 1917년 성립되기 전까지 교육을 비롯한 시가지의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학교조합은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 거류하던 일본인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전 조선 각지에 설립한 공공법인 지방단체였다.³⁰⁾ 진해에서는 이 학교조합이 시가지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선 ‘진해학교조합’에 대하여 고찰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학교조합은 1908년 말부터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그 제도적 기반인 ‘학교조합령’은 1909년 12월에 공포되어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³¹⁾ 지금까지 이 시기 교육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하의 조선인 교육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일본인 교육 문제에 대한 시각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교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미은³²⁾의 연구에서는 조선 내 학교

연구소, 2012, p.266. 거류민단법의 성립 이후 거류민에게 절실했던 학교의 증설, 병원, 도로의 신설 및 개수, 수도부설, 해안매립을 통한 거류지 확대까지,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가지를 조성해갔다. (박양신, 앞의 글, p.266.)

27)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p.162.

28) ‘진해학교조합’의 설립 초기 명칭은 ‘현동학교조합’이다. 여기에선 편의상 ‘진해학교조합’으로 통칭하였다.

29) 김동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도서출판 해안, 2006, pp.81-82.

30) 조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교조합 설립 규모」, 『史林 Vol.22』, 수선사학회, 2004, p.43.

31) 조미은, 앞의 글, 2004, p.44.

32) 조미은, 앞의 글, 2004.;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史林 Vol.21』, 수선사학회, 2012. 2012년의 연구는 ‘학교조합령’의 제정과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조합을 파악하여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학교조합에서 갖는 의미

조합의 설립 규모를 시기별·지역별로 분석하며, 그 전반적인 양상과 외형적 규모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학교조합 설립을 통해 재조일본인들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전하게 확보해주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³³⁾ 또한 송지영의 연구에서는 부산부(釜山府)의 학교비(學校費: 조선인 교육을 담당하는 관공단체조합)와 학교조합의 재정규모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교조합이 거류민단이 폐지된 이후부터 1931년 4월 이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유일한 자치기구였던 점을 밝히고 있다.³⁴⁾ 이러한 선행연구는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조선 내 일본인 사회가 정착되는 가운데 학교조합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학교조합의 정치적 성격에 주목한 강재순³⁵⁾의 연구는 부산을 필드로 홍순권³⁶⁾의 연구에서 학교조합이 드러낸 정치적 성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부산학교조합의 구성과 성격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교조합이 1910년대 식민지 거주 일본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발현하는 정치적 공간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조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산을 필드로 하여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학교조합의 기능과 성격 등을 파악하였다. 그 과정에서 학교조합이 가진 정치적 성격도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학교조합이 1910년대 재조일본인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산이란 지역에 한정되어 행해졌으며, 학교조합과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갈등 관계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군항도시 진해 건설 초기에 나타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도시공공사업을 수행한 ‘진해학교조합’에 주목하여, 진해 시가지를 둘러싼

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33) 조미은, 앞의 글, 2004, p.78.

34)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Vol.5 5』, 부산경남사학회, 2005. p.196.

35) 강재순, 「1910년대 부산학교조합의 구성과 성격」,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36)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 부산부 일본인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Vol.14, 2004. 홍순권은 부산 일본인사회에서 거류민단의 해체와 부제 실시 사이에 나타난 논의과정을 갑인회, 학교조합 등의 언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국일본해군, 총독부, 일본인 사회라는 다양한 주체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시기로는 ‘진해학교조합’이 설립된 1911년부터 1917년 총독부하의 지방행정체제인 ‘면제’의 시행으로 단체의 역할이 교육에 국한되는 시기까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사료로는 ‘제국일본해군사료’³⁷⁾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나타난 다양한 움직임의 볼 수 있는 신문사료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해학교조합’의 활동과 지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국일본해군사료’는 일본 해군성에서 조선의 군항건설계획과 관련된 서류를 ‘진해영흥관계서류(鎭海永興關係書類)’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해군의 진해군항건설계획의 기초가 되었던 자료들이므로 검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신문 사료로 『釜山日報』³⁸⁾와 『朝日新聞』, 『読売新聞』³⁹⁾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釜山日報』는 조선에서 일본인이 경영한 일문지로, 1914년부터는 진해와 관련된 기사를 실는 「鎭海通信」이 존재하였다. 1915년 4월 17일부터는 여기에 마산과 진해의 소식을 실는 「馬鎭日

37) 이 사료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본 사료는 대동아전쟁(원문 그대로) 중 미군이 직접 전장에서 노획하거나 또는 내지 進駐 후, 陸海軍 諸기관에서 押收한 기록문서의 하나로 오랫동안 워싱턴 郊外 프랑코니아 등의 기록보관소에서 보관되고 있었으나, 미국무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환요구에 응하여, 1958(昭和33)년 3월 일본 측에 인도되어 같은 해 4월 요코하마에 도착, 같은 달 10일 지정보관책임청인 방위연구소 戰史室의 손에 돌아온 것이다.”(『鎭海永興關係書類』, 1卷118, 1958.05.)

38) 1905년 1월, 일본의 낭인계 인물들인 葛生修吉·上田黒潮 등이 창간한 일문지 『朝鮮日報』가 동년 11월 3일 『朝鮮時事新報』로 제호를 바꾼 후, 1907년 1월1일자로 芥川正에 의해 『釜山日報』로 개제되었다. 19세기 말을 전후하여 우리 영토 안에서 발행된 이러한 일본어 신문들은 우리 언론이 아니었던 것은 물론, 민족 이익에 유해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일문지 중에서 『釜山日報』가 가진 흥미로운 점은 조선인 독자를 흡수하기 위해서 1914년을 전후하는 시기에 우리 국문 페이지를 두었다는 사실이다. (金大商, 『부산·경남 언론사 연구』, 대왕문화사, 1981, pp.18-23.)

39) 『朝日新聞』과 『読売新聞』은 가능한 한 많은 부수를 팔아 신문사의 영리를 최대화하려는 상업주의적 목표 하에 운영된 상업신문으로, 정치뉴스를 ‘不偏不黨’의 자세(정치적 엘리트나 정당간의 정치적 경쟁에 중립을 지키고 일반대중의 무드나 의사를 반영하는 입장을 의미)에서 보도하고 논평하였다. (이정복, 「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 ‘朝日’, ‘讀賣’, ‘毎日’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Vol.2 No.1, 1986, pp.29-30.

刊」이 『釜山日報』의 한 면 전체를 차지하며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釜山日報』의 1914년 12월부터 1916년까지의 기사를 다루고자 한다. 『読売新聞』과 『朝日新聞』은 일본에서 간행된 신문으로 각각 1874년 도쿄와 1879년 오사카에서 창간되었다. 당시 『読売新聞』과 『朝日新聞』에는 「朝鮮特報」라고 하여 조선의 한 지방에서 나타난 일에 대해서도 신문에 실고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 안과 밖에서 발행된 신문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당시 진해 시가지의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위 사료를 바탕으로 ‘진해학교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해 일본인 사회의 동향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제국일본해군의 진해군항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시가지 경영방식과 ‘진해학교조합’의 설립 경위를 확인한다. 군항도시 진해가 건설되던 초기는 조선 총독부 설치와 맞물려 한반도 내 일본의 법적 지위가 변화하며, 지방통치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당시 제국일본해군과 ‘진해학교조합’의 관계를 고찰하는 일은 이후 제국일본해군, 총독부, 민간단체라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한 진해 시가지 경영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둘째, ‘진해학교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진해학교조합’의 양상 변화 또한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군항도시 진해 발전에 관한 제국일본해군의 전략 변화와 이에 대한 ‘진해학교조합’의 대응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제국일본해군에 의해 군항도시로서 건설된 진해의 시가지 경영·경제 상황은 한반도 내 상황뿐만 아니라 제국일본해군을 비롯한 일본 국내 사정까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진해학교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사회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진해 시가지 경영·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진해학교조합’의 양상 변화를 도시위생문제 중심으로 고찰하여 군항도시 진해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2장 제국일본해군과 군항도시 진해의 경영

제국일본해군은 러일전쟁 당시 해군 임시 근거지로 진해만의 거제도 장목면 송진을 점령하며 진해만에 들어오게 되었다.⁴⁰⁾ 이후 일본해군은 거제도뿐만이 아닌 진해만 일대를 군항으로 하여 그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견을 1906년 7월에 대한제국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는 동년 8월 고종황제의 재가를 얻어 군항예정지로 고시되었다.⁴¹⁾

진해만에서 군항 건설과 함께 시가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0년 4월부터이다.⁴²⁾ 군항과 시가지의 규모는 비봉(飛鳳)에서 행암만(行巖灣)의 제일 끝에 이르는 연안 일대 및 그 전면에 위치한 도서 등을 합해 무려 1,312만 평에 이르렀다.⁴³⁾ 이와 같은 대규모 군항지에서 해군이 군항시설지와 시가지의 건설을 직접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항시설지의 건설은 직접 수행하나, 시가지 건설은 토지의 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설하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다. 제국일본해군은 방침에 따라 진해 시가지를 3차에 걸쳐 구획을 나누고 대여하게 되었다.(이하 토지대여로 칭한다.) 이 과정 중, 제3차 토지대여 때 ‘진해학교조합’이 등장하여 무상으로 시가지의 3분의 2에 달하는 토지를 대여하게 되었다. 이 토지는 ‘진해학교조합’의 기본재산으로서 학교조합이 수행하는 교육을 포함한 갖가지 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40)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40-341. 러일전쟁 준비 중에 일본해군은 우선 거제도 송진포를 가(假)근거지로 정하고 이곳에 진해방비대사령부를 두었다. 그러나 그 항만 규모가 좁아 겨우 수뢰정(水雷艇)의 기항지 정도 밖에 되지 못하였으므로 영구군항의 후보지는 별도로 물색하고 있었다.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43-344.)

41) 손정목, 앞의 책, 1982, pp.344-347.

42) 荒山正彦·大城直樹 編, 『空間から場所へ 地理学的想像力の探求』, 古今書院, 1998, p.59.

43) 杉山萬太, 앞의 책, pp.5-6.

본 장에서는 제국일본해군의 시가지 경영방침과 그에 동반된 토지대여의 상황을 살펴보고, 3차 토지대여와 함께 등장한 ‘진해학교조합’의 연혁을 확인한다. 또한 토지대여로 진해 시가지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진해학교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먼저 제국일본해군의 시가지 경영 방침에 따른 토지대여와 ‘진해학교조합’의 설립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제1절 제국일본해군과 군항도시 진해

1. 제국일본해군의 군항건설과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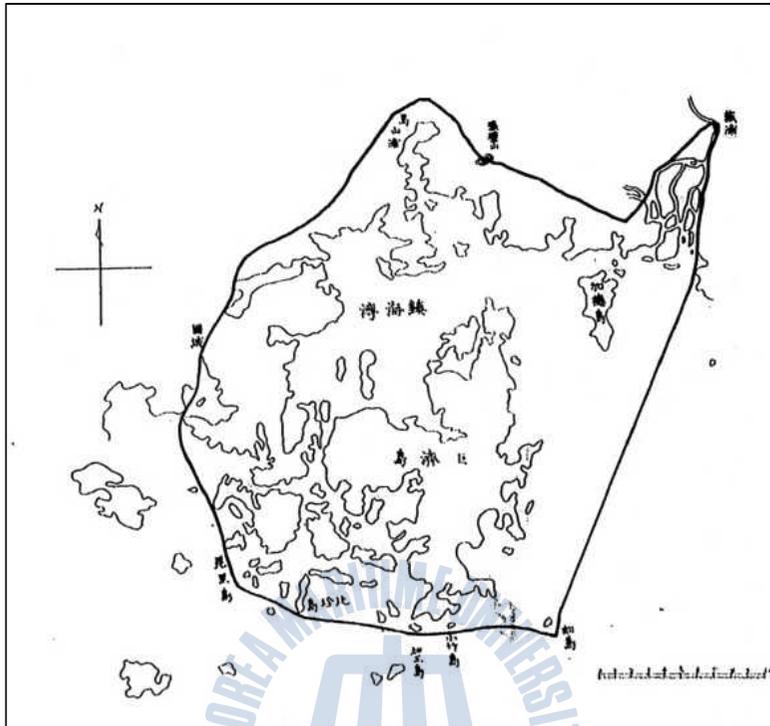
제국일본해군이 진해만 군항지 경역으로 설정한 것은 비봉(飛鳳)에서 행암만(行巖灣)의 제일 끝에 이르는 연안 일대 및 그 전면에 위치한 도서 등을 합한 무려 1,312만 평의 땅이었다. 이 중 직접적인 군항 시설지가 아닌 시가지로서는 비봉의 2700평 및 군항시설지역의 동쪽에 접한 제등만(齋藤灣)에 면한 21만 1천평이 있었다.⁴⁴⁾ 이러한 일본해군의 군항경역 설정과 수용의사는 1906년 7월에 대한제국정부에 전달되어, 같은 해 8월 고종황제의 재가를 얻어 군항예정지로 고시되었다.⁴⁵⁾

다음 <그림1>의 진해군항경역도는 1911년 칙령 제453호에 따라 진해를 제국일본해군의 제5해군구 군항으로 지정하며 그 경역을 표시한 것으로, 진해만을 중심으로 가덕도와 거제도(巨濟島)를 포함하여 마산과 양산에 걸치는 부분까지 한반도의 육지와 바다가 함께 포함되어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제국일본해군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진해군항을 처음부터 직접 경영과 간접 경영으로 나누어 지배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44) 杉山萬太, 앞의 책, pp.5-6.

45) 손정목, 앞의 책, pp.344-347.

<그림1> 1911년 진해군항경역도



출전) 「明治四十三年・勅令第四百五十三号・鎮海軍港境域ノ件(1911년·칙령 제453호·진해군항경역건)」,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소장자료, Ref.A0302087660. 진해군항경역은 위에서 나타난 굵은 흑선 안으로 지정되어, 19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해졌다.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 미야오카 나오키(宮岡直記)가 1909년 4월 해군차관 가토 도모사부로(加藤友三郎)에게 낸 ‘진해만 해군용지 토지경영에 관한 의견(鎮海灣海軍用地土地經營ニ關スル意見)’이란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전략) 한국의 일반적인 형편은 내지(필자:일본)의 토지상황과 크게 그 분위기가 달라서 오랫동안 제멋대로 방임하게 될 것으로 여기며, 직접 군사상의 시설과 함께 간접적인 시설로서 도로·가교·제방·하천 등 그 밖에 장래 경영할 주요지의 부지 구획 준비 등에 대해 다대한 사업을 필요로 하는 이것들은 도저히 군사상의 시설과 함께 일시에 그 토공(土工)을 일으키려는 전망이 받아들여 질

수 없다. 그렇다면 방비대의 이전과 함정에 대한 제반 시설에 착수되어야 하고, 그 시기로 전후하여 일반 발전을 기할 만한 간접의 경영시설로서 지금부터 미리 그 사업에 착수하고 용지 전반에서 징수한 차지료(借地料)의 수입액으로서 이를 경영처리의 나머지를 강구하면 언젠가는 그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⁴⁶⁾

이상과 같이 제국일본해군은 군사 상 시설과 시가지의 시설을 동시에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즉, 막대한 넓이의 진해만 해군용지에서 군항과 시가지의 동시 건설이 어려우므로 직접적 군사 시설인 군항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자 한 것이다. 이후 시가지는 토지대여를 통해 간접 경영으로 시설을 들여 발전시키고, 그 차지료를 해군의 몫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해군이 간접 경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지역은 군항의 배후지, 즉 진해 시가지로서 개발될 곳이었다.

진해만 해군용지에 관한 경영 방침이 나온 다음해인 1909년 6월 30일에 ‘진해만시설조사위원회’ 이 구성되었다. ‘진해만시설조사위원회’ 은 총 14명으로 군무국의 노마구치 대좌(野間口大佐), 우치다 소좌(内田少佐), 경리국의 스즈키 대감(鈴木大監), 나가야스 소감(永安少監), 스즈키 대주계(鈴木大本計), 함정본부의 가토 기관대좌(賀藤機関大佐), 사카키바라 중좌(榊原中佐), 히로세 중좌(廣願中佐), 시라이 중감(白井中監), 임시건축부의 와타나베 공무감(渡邊工務監), 이노우에 기사(井上技師), 군령부의 야마야 대좌(山屋大佐), 야마지 대좌(山路大佐), 나카지마 중좌(中島中佐) 였다.⁴⁷⁾

이 진해만시설조사위원회의 임무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마이즈루(舞鶴) 군항 설비를 표준으로 하여 주로 함정의 입거(入渠)와 수리 등을 목적으로 진해만에 필요한 설비와 예산을 조사· 보고하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진해만 방비대를 현 동방면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설계와 예산을 따로 조사· 보고하는 것이었다.⁴⁸⁾ 이들은 1910년 1월 17일에 ‘진해군항시설지실지조사보고(鎮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를 작성하여 해군대신 사이토 마코토(齋藤実) 앞으로 제출하였다.

46) 『鎮海永興關係書類』, 11-4, 「鎮海湾海軍用地土地經營ニ關スル意見」, 1909.04.

47) 『鎮海永興關係書類』, 1-1. 사료를 통해 최대한 원문을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함정 본부의 기관대사를 맡고 있던 인물의 이름을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료의 印章을 살펴본 결과, 기관대좌의 성은 가토(賀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48) 『鎮海永興關係書類』, 1-1, 「鎮海湾施設調査委員ノ任務ニ関シ」, 1909.06.25.

이 보고서는 군항 설비에 관해 실지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진수부(鎭守府)부터 야포사격장까지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실지 조사 후 각 조사위원들 간에 일치한 소견, 진해군항수도문제, 관사부지평수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⁴⁹⁾ 이 중 조사위원 간에 일치한 소견은 총 6개 항목으로 이 중 네 번째 항목이 일본인과 한국인의 거주구 격리에 관한 것이었다. 바로 “한국인을 일본시민과 잡거하게 하는 것은 위생이나 그 외에 있어서도 불가한 것으로 격리하는 것이 지당하여 모두 덕산 방면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구절로, 일본해군이 군항건설초기부터 진해 시가지를 일본인 사회로 건설하고자 한 것이 드러난다.⁵⁰⁾

진해군항건설계획이 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허가되자 일본해군은 본격적으로 군항건설을 시작하였다. 점차 군항시설이 갖춰지게 되자, 시가지 또한 그 간접영을 위해 토지대여를 시작하게 되었다. 토지대여는 기본적으로 1907년에 총 16조로 구성된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鎭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에 따라 행해졌다⁵¹⁾ <자료1>. 이 내규는 1910년에 이르러 작성 당시인 1907년에 비해 한일 관계를 포함한 진해만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당시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이었던 미야오카 나오키(宮岡直紀)가 총 47조의 개정안을 해군대신 사이토 마코토에게 보고하였다.⁵²⁾

1907년의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를 살펴보면, 제6조에서 “진해만해군용지의 차지권(借地權)은 양도 또는 전대(轉貸) 할 수 없음”이란 내용을 확인

49) 『鎭海永興關係書類』, 3-8, 「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1910.1.17. 자료원문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鎭守府, 2經理部, 3衣糧科, 4監獄, 5軍法會議, 6測量庫, 7港務部, 8水雷團, 9工廠, 10工廠, 11火藥庫, 12小銃射的場, 13大砲發射場, 14水雷發射場, 15石炭庫, 16病院, 17練兵場, 18官舍1, 19官舍2, 20官舍3, 21下士卒集會所, 22水交社・海友社, 23市街, 24停車場, 25墓地, 26學校, 27野砲射的場.”

50) 『鎭海永興關係書類』, 3-8, 「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 1910.1.17. 자료원문 “韓人ヲ日本市民ト雜居セシムルハ衛生上其他ニ於テ不可ナルヲ以テ之ヲ隔離スルヲ至當トシ悉皆(ことごとく皆)徳山方面ニ移轉セシムルヲ必要トス.”

51) 『鎭海永興關係書類』, 8-8, 「鎭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 이 내규는 1907년 6월에 정해져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52) 『鎭海永興關係書類』, 14-14, 「鎭海海軍用地貸下內規改廢ニ關スル件」, 1910.05.22.

할 수 있다. 이것은 1910년의 개정된 내규에서도 제5조에 같은 내용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³⁾ 이처럼 일본해군은 진해만해군용지의 차용인의 토지매매·전대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내규를 바탕으로 해군용지 내 진해 시가지를 3차에 걸쳐 대여하였다. 1911년 4월의 제1차에 36,000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의 제2차에선 35,000평, 1912년 3월의 제3차에는 시가지 240,000평과 산림 1,338,000평을 대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⁴⁾

제국일본해군이 진해만에서 3차에 걸쳐 토지대여를 행한 것은 “완전한 시가를 건설하려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었다.⁵⁵⁾ 뿐만 아니라 이 토지대여를 통해 인구 증가를 동반한 시가지의 활성화를 기대한 것을 아래의 <표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 해군의 진해군항 토지대여

	대여시기	대여면적(평)	건축준공 호수(호)	예상인구(명)	투자금(원)	조사시기
1차	1911.04.01	36,000	2,000	약 15,000	약 3,000,000	1912.03
2차	1911.11.29	35,000	약 100	약 10,000	약 3,000,000	1912.03
3차	1912.03.15	시가지 약 240,000 산림 1,338,000		약 30,000 ~ 50,000		1912.08

출처) 杉山萬太, 『鎮海』, 鎮海印刷社, 1912, pp.116-117. 원문에서 3차의 시가지가 140,000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자료들과 비교해본 결과 240,000평의 오타로 생각된다.

<표1>에서 1911년과 1912년 토지대여면적은 각각 36,000평과 35,000평이었으며 이에 대한 기대인구도 15,000명과 10,000명으로 예상되었다. 1911년 실제 진해 인구수가 3,565명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토지대여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차에 이르러선 대여면적이 시가지 약 240,000평과 산림 1,338,000평으로 늘어난 만큼, 기대인구도 30,000명에서 50,000명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실제 1912년 3차 토지대여 이후 진해 인구수는 5,000명에서 6,000명 남짓으로 기대인구만큼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53) 『鎮海永興關係書類』, 14-14, 「鎮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 제5조 진해만해군용지의 차지권(借地權)은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음. 단, 차지인 사망 등으로 인해 정당 상속인에게 계승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54) 杉山萬太, 앞의 책, pp.5-6.

55) 杉山萬太, 앞의 책, p.7.

제국일본해군은 1차, 2차 토지대여사업에서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에 기초하여 차용인의 토지매매·전대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며 직접 민간에 토지를 대여하였다. 그러나 3차에서는 교육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해학교조합’의 기본재산으로 시가지와 산림을 30년간 무상 증여하며, ‘진해학교조합’이 25년의 기간으로 민간에게 전대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으로 제국일본해군에 의한 토지대여는 전부 종료되었다.⁵⁶⁾ 3차에서 ‘진해학교조합’에 대한 전대권의 허용은 시가지 간접 경영이라는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 건설 계획과 상응하는 부분이다.

군항도시 진해 건설 초기부터 제국일본해군은 진해를 군항시설 지역과 시가지로 나누어 직접 경영에 따른 군항시설지 발전과 토지대여를 통한 간접경영으로 시가지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제국일본해군은 3차에 걸쳐 토지대여사업을 행하였고, 3차 대여자인 ‘진해학교조합’은 막대한 토지와 함께 전대권을 얻었다. 이로써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의 토지대여사업을 계승하는 형태가 되어 시가지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2. 일본인 시가지 경영과 ‘진해학교조합’의 등장

제국일본해군의 진해토지대여사업에서 ‘진해학교조합’이 대여한 면적은 시가지 약 240,000평과 산림 1,338,000평으로 1차에서 3차까지 대여 면적 중 최대 규모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이를 조합 기본재산으로 삼고, 진해 시가지에서 전대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제국일본해군은 1차와 2차 토지대여에서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의 제5조에 근거하여 차용인의 토지매매와 전대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⁵⁷⁾ 그러나 3차 토지대여에서 ‘진해학교조합’이 전대권을 얻으며 사실 상 제국일본해군의 토지대여사업을 계승하는 형태가 되었다. 제국일본해군이 토지대여를 통한 간접경영으로 시가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점을 상기할 때, 이는 시가지에서 ‘진해학교조합’의 사업 범위가 넓어지며 그 역

56) 杉山萬太, 앞의 책, p.5.

57) 『鎮海永興關係書類』, 14-14, 「鎮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

할 또한 중요해졌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는 교육사무의 목적을 지닌 ‘진해학교조합’이 토지대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된 법규를 확인하고 그 설립 역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진해학교조합’은 1910년부터 시행된 ‘학교조합령’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학교조합령’은 조선에 대한 일본인 식민정책의 일환으로서, 일본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가족 단위로 조선에 이주하여 생활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⁵⁸⁾ ‘학교조합령’은 학교조합을 법인으로 인정하며, 특히 조합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⁵⁹⁾

1909년 제정된 ‘학교조합령’은 1914년에 ‘부제(府制)’ 제정과 동시에 개정되었다. 일본은 1914년에 부제를 실시하며 교육을 제외한 모든 행정을 총독부 산하의 일원적 지배체제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1912년 각종 공립학교 법령에 의하여 일본인 학교 설립자가 거류민단과 학교조합으로 제한되기 전까지 다양한 조직이 재조선 일본인 교육사무에 참여하고 있었다.⁶⁰⁾ 1914년 각국거류지회와 거류민단이 철폐되자, 거류민단이 행했던 교육사무는 학교조합으로 인계되었다.⁶¹⁾ ‘학교조합령’ 개정령으로 재조선 일본인 교육사무는 학교조합이 일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1909년 제정 당시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던 ‘학교조합령’은 개정을 거치며 41개 조항으로 늘어났다. ‘학교조합령’ 제정령의 “교육사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개정령에서도 “일본인의 교육에 대한 사무의 처리”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1914년의 개정령은 제정령을 질적·양적으로 보다 온전하게 갖추어 비로소 완성된 법령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⁶²⁾

다음의 <표2>는 ‘학교조합령’ 제정령과 개정령의 내용에서 나타난 주요 변화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58) 조미은, 앞의 글, 2012, p.235.

59) 조미은, 앞의 글, 2004, p.50.

60) 조미은, 앞의 글, 2012, pp.207-208.

61)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p.214.

62) 조미은, 앞의 글, 2012, pp.228-229.

〈표2〉 ‘학교조합령’의 개정 전후 주요 변화

	학교조합령(1909년 제정)	학교조합령 개정령(1914년 개정)
시행시기	1910년 1월 1일 시행	1914년 4월 1일 시행
목적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것.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일본인의 교육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
권한	1조 2항에 따라 학교조합은 상황에 따라서 부대사업으로 위생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① 1조 2항의 부대사업에 대한 부분이 삭제됨. ② 경영하는 사업은 ‘일본인 교육사업’으로 한정됨. ③ 기존의 학교조합에서 운영하던 각종 시설에 대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함.

출전) 『統監府公報』, 1909. 12. 27.(조미은, 앞의 글, 2012, p.215.에서 재인용); 『朝鮮總督府官報』, 1913.10.30.; 『每日申報』, 1913.11.3.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학교조합령’의 개정 전후 주요 변화를 정리하였음.

‘학교조합’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한 면에서 그 부대사업을 한정하는 점은 개정령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910년에 부대사업으로서 위생사무의 처리를 인정했던 것과 달리 1914년에는 그 부분 자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부대사업의 신설은 불가능해졌다. 단, 안정적인 교육 재정의 확보를 위해 학교조합에서 원래 운영하던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인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부대사업을 하고 있던 학교조합에서는 계속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었다.⁶³⁾

‘진해학교조합’의 초기 명칭인 ‘현동학교조합(縣洞學校組合)’은 ‘학교조합령’의 개정 전인 1911년 10월 30일에 설립 인가를 얻었다.⁶⁴⁾ 지금 진해로 통칭되는 마산부 진해의 웅중면과 웅서면의 진해군항설비지는 당시 통칭하여 ‘현동(縣洞)’이라 칭해졌기 때문에 조합 명칭도 ‘현동학교조합’이었다.⁶⁵⁾

63) ‘학교조합령’의 개정 후에도 학교조합에서는 수도·도축장·묘지 또는 화장장 등의 부대사업을 계속 경영하였다. 부제 실시 다음해인 1915년 현재 도축장을 경영하는 조합은 64개였다. 그로부터 생기는 수입은 합계 약 7만 9,500원으로 공중위생의 유지 개선과 아울러 학교조합 재정에도 적지 않은 수익이 되었다. 즉, 1914년 개정령의 법령 내용에서는 ‘부대사업 운영’ 부분이 제거되었으나 학교조합의 도축장 운영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이다. (조미은, 앞의 글, 2012, p.227.)

64) 『朝鮮總督府官報』, 第355號, 1911.11.01.

‘현동학교조합’은 1911년에 설립 인가를 얻음으로써 교육사무를 비롯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는 이후에 토지대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1911년 진해 일본인 시가지에서 ‘현동학교조합’이 설립된 것은 1910년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건설로 인하여 진해만에 갑작스레 일본인이 증가한 데 기인한 현상이었다. 진해에는 ‘현동학교조합’의 설립 인가 직전인 1911년 9월까지 일본인 학생 124명이 비봉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마산까지 통학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위험부담이 크게 작용한 탓에 학부형들은 일본해군에 학교 개교를 요구하게 되었다.⁶⁶⁾ 이 요구에 응하여 1911년 10월 30일, 현동학교조합(縣洞學校組合)이 설립 인가를 얻었다.⁶⁷⁾ ‘학교조합령’에 따르면 학교조합에는 그 지구 내의 제국신민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 관리자와 조합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제3조, 제5조)⁶⁸⁾ 이에 따라 1911년 11월 18일, ‘현동학교조합’의 초대 관리자로 해군대좌 오카노 후지마쓰(岡野富士松)⁶⁹⁾가 임명되었다. ‘현동학교조합’이 설립된 후 1912년 1월 10일, 제국일본해군은 건축지부로 사용했던 가칭사(假廳舍)를 빌려 현동 심상고등소학교를 개교하였다.⁷⁰⁾ 개교 당시 아동 수는 130여명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신학기부터는 450명, 6월에는 550명을 넘어섰다.⁷¹⁾

‘현동학교조합’은 1912년 3월 8일, 마산부 진해의 응중면(熊中面)과 응서면(熊西面)이 창원군 진해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진해학교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⁷²⁾ 같은 달 15일에는 해군의 3차 토지대여에서 학교조합 재산으로 거

65) 『鎭海永興關係書類』, 11-4, 「鎭海湾海軍用地土地經營ニ關スル意見」, 1909.04

66) 진해시사편찬위원회, 『鎭海市史』, 1991, pp.220-221.

67) 『朝鮮總督府官報』, 第355號, 1911.11.01.

68) 『統監府公報』, 통감부령 제71호, 학교조합령, 1909.12.27. 제3조 학교조합 지구 내에 거주하는 제국신민은 그 조합원으로 함. 제5조 학교조합에는 조합회 및 관리자를 둬.

69) 오카노 후지마쓰(岡野富士松)는 진해방비대의 임시건축지부 소속으로 진해에서 활동하였으나, 1912년 9월 27일에 가라사키(韓崎) 함장이 되어 동년 10월 8일 진해를 떠났다.(『朝日新聞』, 1912.10.10.)

70) 이 현동심상고등소학교는 후에 진해심상고등소학교로 개칭하였으며, 現 진해 도천초등학교(道泉初等學校)의 전신이다.

71) 진해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20-221.

의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대여료”로 토지를 대여하게 되었다.⁷³⁾ 이를 바탕으로 ‘진해학교조합’은 시가지에서 전대 사업을 수행하였다. 앞서 <표1>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당시 ‘진해학교조합’이 대여한 토지는 시가지가 약 240,000평, 산림이 1,338,000평이었다. 산림을 제외하고, 해군이 1차와 2차 때 대여했던 시가지의 규모와 비교해보더라도 각각 약6.5배, 약6.8배의 크기이다. ‘진해학교조합’은 진해 시가지의 일본인들에게 이 토지를 전대하여 얻은 대여료로 교육사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교조합령’에서 “조합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진해학교조합’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법률적으로 지울 수 있었다. 이전에 교육사무를 담당했던 거류민단은 법률상 근거 부재로 인하여 거류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울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재정적 한계로 교육사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 실제 1907년에서 1912년까지 일본 거류민단 세출액에서는 교육비의 비율이 대체로 30%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⁷⁴⁾ 교육비는 경상적인 지출로 수업료 수입을 웃돌며 거류민단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⁷⁵⁾ 거류민단의 교육사업 경험은 ‘학교조합령’에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이에 기초하여 ‘진해학교조합’은 전대료와 조합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해학교조합’은 설립 초기인 1911년에 진해 시가지 발전을 주도한 해군으로부터의 토지대여를 통해 기본재산을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 사업뿐만이 아닌, 토지대여를 기반으로 한 시가지 발전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조합비 징수권을 비롯한 부대사업의 권리를 갖고 있던 ‘진해학교조합’이 교육만의 목적을 가진 단체가 되는 것은 1917년 10월 1일에 ‘면제(面制)’가 시행되면서부터이다.⁷⁶⁾

72) 『朝鮮總督府官報』, 第467號, 1912.03.08.

73) 「鎮海の發展 - 土地貸下の狀況」, 『東京時事新報』, 1912.06.06. ‘진해학교조합’이 제국일본해군으로부터 시가지를 대여한 것에 대해서 “무상대여 받았다”는 기사도 존재한다. (鎮海學校は基本財産として海軍省より鎮海市街地予定地二十萬坪、山林約百萬坪を無償貸与せられたり。: 『朝日新聞』, 1912.03.04.)

74) 박양신, 앞의 글, pp.253-254.

75)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p.192.

‘진해학교조합’이 설립된 시기는 교육사무가 거류민단에서 ‘학교조합령’의 개정에 따라 교육목적에 집중한 학교조합으로 점차 넘어가는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국일본해군이 군항시설지와 시가지를 직접경영과 간접경영으로 나누고자 했던 것을 고려할 때, 교육사무를 비롯한 부대사업의 권한을 가진 ‘진해학교조합’에 시가지의 상당 부분이 대여된 점은 이 단체가 시가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진해 시가지에서 교육목적을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던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는 191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⁷⁷⁾ 해군이 대여한 토지에는 시가예정지 약 240,000평과 산림 1,338,000평으로, 1차와 2차 때 시가지만 대여한 것과 달리 산림이 포함되어 있었다. ‘진해학교조합’은 1차와 2차에 비해 훨씬 넓은 면적의 토지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전략) 제3회 대여는 진해학교조합이 기본재산으로서 해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가예정지 20만평 산림 100만평 중에서 북부시가지는 일정가격으로 대여하기로 하였으며 남부시가지 4만평은 오는 15일 경쟁 입찰에 붙이기로 하였는데 이를 3구로 나누면

제1구 제등만(齋藤灣)의 해안에 이르며 창고부지로 가장 적당함.

제2구 행암만(行巖灣)에 면한 도로 측으로 상업시가에 적합함.

제3구 정차장 예정지 부근으로 제1회 대여지에 접속하여 상업시가에 적합함.

(후략)⁷⁸⁾

76) 진해 면에서 사업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1917년 6월 9일에 제령 제1호로 공포되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면제(面制)’에 의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① 도로, 잔교, 도선, 하천, 제방, 관개, 배수 ② 시장, 목조, 농사, 양잠, 축산, 기타 산업 등의 개량 보급 및 해조·해충(害鳥·害蟲)구제 ③ 묘지, 화장장, 도장, 상하수도, 전염병예방, 오물의 처치. ④ 소방, 수방 ⑤ 제(諸)증명, 공문, 도면의 열람. ⑥ 기타 필요에 응하여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은 사항. 그리고 여기 面의 업무 중에 교육 사무가 제외된 것은 학교조합, 학교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황정덕, 『鎭海市史』, 鎭海郷土文化研究所, 1987, p.190.)

77) 杉山萬太, 앞의 책, pp.116-117.

78) 『朝日新聞』, 1912.03.11.

‘진해학교조합’은 해군에게 대여한 토지를 3구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경쟁 입찰을 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부시가지를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과반을 대여하게 되어 19일에는 일단 중지하였고, 20일부터 남부 시가지의 경쟁 입찰을 20일, 22일, 24일의 3일에 걸쳐 시행하였다. 그리고 25일부터 다시 수시로 희망자에게 대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⁷⁹⁾ 아래의 기사를 통해 경쟁 입찰로 진행된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해토지대여는 매우 호황으로 도쿄 및 지방 자본가 중 계속 출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직접 출원한 자 중에는 소망하는 토지정명(土地町名) 등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구획에 여러 가지 구별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단지 평수만을 내세워 신청한 자가 있다. 이는 당국에서 취급하기에 아주 불편을 느낄 뿐만 아니라 희망자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기 어려움으로 우선 4월 4일까지 중지하고 더욱이 4월 중순부터 널리 대여를 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이번 고우지마치구(麴町区) 히라가와정(平河町) 3정목 17번지 오오미나토(大湊) 시가건설사무소(전화번호 559)에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희망자에게 정명, 번지, 평수 기타 모든 설명을 하는 등 모든 교섭에 대응한다고 한다. (후략)⁸⁰⁾

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에는 도쿄를 비롯한 지방의 자본가들이 대여를 희망하며 참여했다. 이러한 다른 지역의 출원자를 위해 ‘진해학교조합’에서는 진해가 아닌 일본의 도쿄에도 그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도쿄 사무소의 설치 이후, 같은 해 4월 18일에는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각각 다음과 같은 대여광고(貸下廣告)가 실리게 되었다.

진해 시가지 토지대여 및 제등만 입찰은 오는 4월 19일부터 개시함. 다만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로 함을 광고함.

도쿄시 고우지마치구 히라가와정 3정목 17번지
(東京市 麴町区 平河町 3丁目 17番地)

진해학교조합 1912(메이지45)년도 4월 18일 도쿄사무소 전화번호 町555.⁸¹⁾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는 진해 주변 지역뿐만이 아닌 일본의 대도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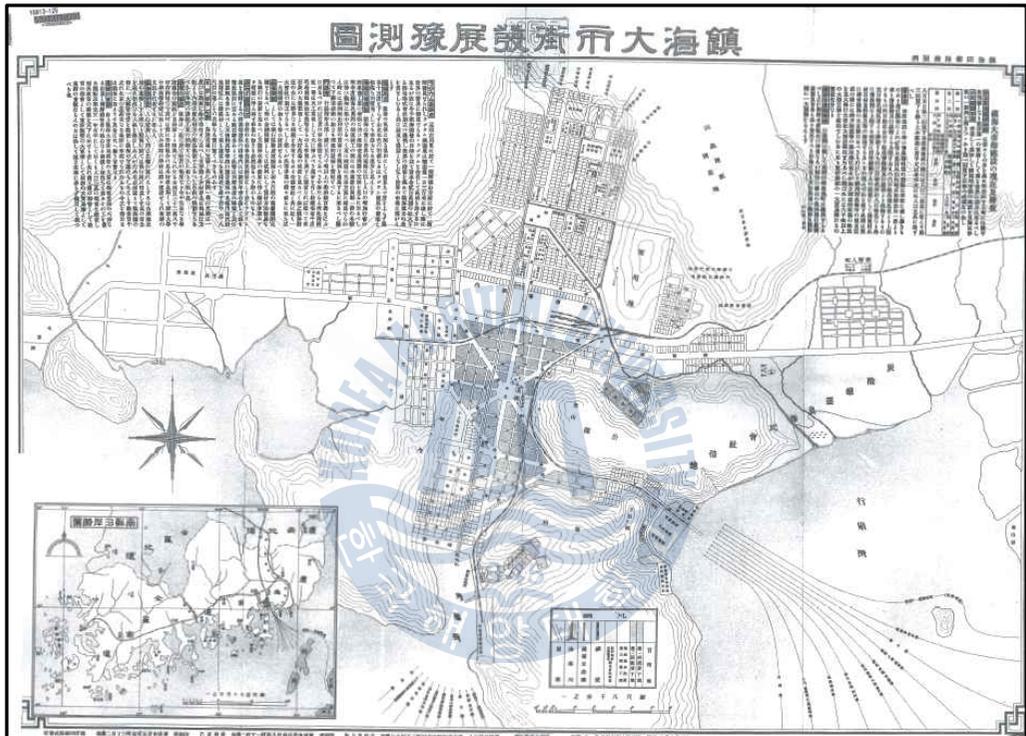
79) 『朝日新聞』, 1912.03.14., 1912.03.17., 1912.03.20., 1912.03.24.

80) 『朝日新聞』, 1912.04.05.

81) 『朝日新聞』, 1912.04.18., 『読売新聞』, 1912.04.18.

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토지대여는 매우 성황을 나타내며 신청자가 만원에 이르렀다.⁸²⁾ 또한 신청자 중 과반은 도쿄와 오사카 등의 대자본가로 각종의 사업이 진해에 설계되기 시작했다.⁸³⁾ 아래는 ‘진해학교조합’에서 토지대여사업의 홍보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진해대시가발전예측도(鎭海大市街發展豫測圖)’⁸⁴⁾이다.

<그림2> 1912년 진해대시가발전예측도



출전) 「鎭海大市街發展豫測圖」, 1912.05.21.발행, 저작 겸 발행인 도쿄시 고우지마 치구 히라가와정 3정목 17번지(東京市麴町区平河町3丁目17番地) 야마다 주타로(山田丑太郎).

지도의 상단에는 앞으로 진해 시가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총 1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상술하고 있다. 14가지 항목은 진해군항건설사업, 시가

82) 『朝日新聞』, 1912.04.18.

83) 『朝日新聞』, 1912.05.09.

84) 이 지도는 1912년 정가25전(錢)으로 발행인의 주소는 ‘진해학교조합’ 도쿄사무소와 동일하다.

건설사업, 제등만(齋藤灣), 남선어업근거지, 라듐탄산천(ラジウム炭酸泉), 기후풍광, 해륙교통기관, 행암만(行岩灣), 상업기관, 정원석과 건축 석재, 쌀·콩·재목 석탄, 교육의 도부(都府), 진해관세음, 남선의 수도이다. 또한 지도에는 명암으로 토지대여구를 표시하여 기존에 대여한 곳과 ‘진해학교조합’이 전대할 토지를 구분하고 있다. 구획된 토지 위에는 앞으로 건설될 건물과 시설을 명기하여 진해 시가지의 발전된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이 지도는 ‘발전예측도’로 당시 구획된 시가지의 모습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내용 부분은 실제 지도 위에 기술된 내용과 다른 점이 많다.

14가지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해를 “남선어업근거지”, “교육의 도부”, “남선의 수도”로 홍보한 이 지도는 도쿄와 오사카의 자본가들이 진해 토지대여에 참여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해학교조합’이 전개한 토지대여사업의 상황은 진해 시가지 전체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아래는 당시 진해 무역액의 상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3> 1912년 상반기 진해 무역액의 증가 상황

월 별	1월(하반)	2월	3월	4월	5월(상반)
이입액	5,596엔	14,304엔	28,244엔	24,321엔	21,423엔
이출액	-엔	52엔	750엔	1,313엔	4,194엔
계	5,596엔	14,356엔	28,994엔	25,634엔	25,617엔

출전) 『朝日新聞』, 1912.06.27.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912년 상반기 동안 진해의 무역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진해 토지대여와 함께 진해로 많은 인구가 유입되자 이와 동시에 무역액도 증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12년 상반기에는 진해 시가지 전체가 활성화되었다고 여겨진다.

같은 해인 1912년 7월, 위와 같은 진해 시가지 상황이 일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진해방비대사령관으로 토지대여사업을 주도했던 가미이즈미 도쿠야(上泉德弥) 해군소장의 전임(轉任)이 결정되었던 것이다.⁸⁵⁾ 가미이즈미의 전

85) 가미이즈미 도쿠야(上泉德弥) 해군소장의 전임 문제는 제국일본해군의 전략 변화와 진해 시가지의 상황을 함께 보아야 그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국 일본해군과 관련된 내용은 본고 제3장 1절 ‘진해학교조합’과 제국일본해군에서 자

임과 동시에 ‘진해학교조합’도 토지대여에 곤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이 상황이 드러나는 기사이다.

진해학교조합은 제3회 대여 토지에 대한 차지신청취소가 속출하는 경우 그야말로 파산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먼저 단지 출원신청금으로 맡겨만 두고 아직 대여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토지의 인도가 완료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서둘러 대여규정 제16조 ‘출원신청금은 대여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차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학교조합의 소득으로 착출자에게 반환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通告하여 강제적으로 계약하려 한 이런 일은 신청자의 감정을 대단히 해칠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쉽지 않은 대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후략)⁸⁶⁾

위와 같이 ‘진해학교조합’은 예정되었던 토지대여가 상당수 취소되면서 재정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파산 지경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 진해에서는 학교조합임시회의 및 유지대회를 열어 선후책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⁸⁷⁾ 당시 모임을 주최한 것은 당시 ‘진해학교조합’ 학교조합관리자였던 나가노 주조(永野仲藏/長野忠藏)⁸⁸⁾였다. 나가노는 이 모임의 시민총대로서 여기에서 가결된 선후책과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의 유임을 일본수상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및 해상 사이토 마코토(齊藤実)에게 전보로 청원하기에 이르렀다.⁸⁹⁾ 3차 토지대여로 진해 시가지의 간접 경영 주체로 등장한 ‘진해학교조합’은 시가지 발전이 위기에 봉착하자, 선후책을 강구하는 주체로서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다.

제국일본해군이 해군용지로 수용한 진해만은 균형시설지역과 시가지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직접경영과 토지대여라는 간접경영의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도시 건설 초기인 1911년에서 1913년까지 진해 시가지는 일본인이 90% 이상인 일본인 사회로 건설되었다. 이 시기, 진해 시가지는 토지대여사업을 중심으로 시가

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란다.

86) 『朝日新聞』, 1912.08.13.

87) 『朝日新聞』, 1912.07.12.

88) ‘진해학교조합’과 관련된 1912년의 『朝日新聞』 기사와 『鎭海要覽』(岡萬吉, 騰龍閣, 1926.) 등의 사료를 비교한 결과, 나가노 주조(永野仲藏)와 나가노 주조(長野忠藏)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89) 『朝日新聞』, 1912.07.12.

지를 개발해나가며 군항도시로서 그 물리적인 형태를 잡게 되었다. 한편, 총독부는 1911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 전체를 식민지화하며 진해만의 관할권을 두고 해군성과 논의를 벌였다. 결과적으로 1912년에 직접적인 군항시설지역을 제외한 진해 시가지의 관할권이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 복잡한 시기 진해 시가지를 발전시켜왔던 제국일본해군의 토지대여사업을 ‘진해학교조합’이 대신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다. ‘진해학교조합’은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시가지 간접경영의 주체로 등장하여, 진해 일본인 사회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절에서는 진해 시가지 간접경영 주체로 등장한 ‘진해학교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통해 그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도록 한다.

제2절 ‘진해학교조합’의 성격

1. ‘진해학교조합’의 구성

‘진해학교조합’은 ‘학교조합령’에 따라 학교조합관리자와 평의원으로 구성된 조합회를 두고 있었다. 1910년 제정된 ‘학교조합령’은 1914년 개정을 통해 질적·양적으로 보다 완성된 법령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⁹⁰⁾ 따라서 7개 조로 구성된 1910년의 ‘학교조합령’에선 학교조합관리자와 조합회에 대한 세목도 1914년의 개정령에 비해 자세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진해학교조합’이 설립된 1911년 당시 학교조합관리자는 ‘학교조합령’에 따라 이사관(理事官)이 임면(任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⁹¹⁾ 그리고 조합회를 구성하는 평의원들은 선거로 선출되었다.⁹²⁾ 아래에서 학교조합관리자와 평의원을 통해

90) 조미은, 앞의 글, 2012, pp.228-229.

91) 『統監府公報』, 1909.12.27. ‘학교조합령’ 제5조 학교조합에는 조합회 및 관리자를 둬. 관리자는 이사관이 任免함. 관리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함.

92) 岡萬吉, 『鎮海要覽』, 騰龍閣, 1926, p.82.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시가지에서 어떤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학교조합관리자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일체의 그 사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⁹³⁾ ‘진해학교조합’의 학교조합관리자는 1911년부터 1919년까지 7명의 인물을 거치며 해군대좌에서 총독부 서기, 실업가, 지역 정치가 등으로 성격이 변화해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4>는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진해학교조합’ 관리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4> ‘진해학교조합’ 관리자(1911-1919)

시기	이름	원적	직업	他단체
1911.12.28.-	岡野富士松	오카야마 현 (岡山縣)	해군대좌 (임시해군건축부)	-
1912.05.-	永野仲藏 (長野忠藏)	-	-	-
1912.10.-	一杉竹之助	-	내무부 군서기	-
1913.03.-	佐藤啓行	-	내무부 도서기	-
1914.04.-	前田榮吉 (前田榮一)	효고현 (兵庫縣)	-	-
1915.04.-	大坪善右衛門	도쿄부 (東京府)	실업가 (鎭海座주인)	위생조합, 번영회
1919.04.-	野崎常藏	돗토리현 (鳥取縣)	교사·진해면장	위생조합, 번영회, 경상남도도평의회원(1931), 경상남도도회의원(1933).

출전) 岡萬吉, 『鎭海要覽』, 騰龍閣, 1926 pp.81-83.에 기초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인물자료를 추가하였다.

1911년 ‘진해학교조합’ (당시 명칭은 ‘현동학교조합’)이 설립되던 당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던 학교조합관리자는 진해만임시해군건축지부 부장이었던 오카노 후지마쓰(岡野富士松) 해군대좌였다.

1911년은 진해만이 제국일본해군에 의해 군항과 시가지로 나누어 개발되기 시작한 해였다. 이 때, 일본인 인구의 급증과 함께 학부형들이 통학거리와 위험 부담으로 학교 개교를 요구했던 곳도 제국일본해군이였다.⁹⁴⁾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제국일본해군이 학교조합의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93)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논문, 2010.

94) 진해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220-221.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진해만 임시해군건축부에 속했던 오카노 대좌가 학교 건설의 임무를 띠고 학교조합관리자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카노 대좌에 이어 관리자로 취임한 나가노 주조(永野仲藏/長野忠藏)에 대해서는 사료를 확인 할 수가 없었다. 뒤이어 이치스기 다케노스케(一杉竹之助)와 사토 게이코(佐藤啓行)는 총독부 직원인 내무부 서기였다.⁹⁵⁾ 이는 ‘진해학교조합’ 초기에 보였던 제국일본해군의 영향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후 마에다 에이키치/에이이치(前田榮吉/前田榮一)⁹⁶⁾는 그 퇴임을 앞두고 진해 헌병분대장과 경찰서장, 번영회장이 주최한 송연회에 80여 명이 참석했던 점, 이후에도 귀성 직전 야마구치 구쥬로(山口九十郎) 진해방비대사령관이 오찬식을 열어 초대 한 점 등을 미루어보아 진해에서 원로로 대접받고 있었음은 추측 가능하나 그 정확한 직업은 확인하지 못하였다.⁹⁷⁾ 그 행적으로 학교조합관리자에서 물러난 뒤 효고현으로 귀성한 점은 확인 할 수 있었다.⁹⁸⁾ 이러한 인물들을 거쳐 1916년 2월에 이르러서 ‘진해학교조합’ 관리자가 된 사람은 극장 진해좌(鎭海座)의 주인인 오쓰보 젠우에몽(大坪善右衛門)이었다.

오쓰보는 도쿄설탕상조합(東京砂糖商組合)의 부조합장을 지냈으며, 진해에 와선 극장 진해좌(鎭海座)를 지었던 시가지 유력자였다.⁹⁹⁾ 이 진해좌는 오쓰보가 속해있던 진해 민간단체인 ‘진해번영회’와 ‘진해위생조합’에서 개최하는 회의나 행사 장소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쓰보는 실업가 출신의 시가지 경영자였다고 말할 수 있다. 1919년까지 학교조합관리자의 재임기간을 확인하면 오쓰보가 4년으로 가장 길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오쓰보 이후인 1919년에 이르러선 노자키 쓰네조(野崎常藏)라는 교육가 출신으로 진해에서 학

95) 『朝鮮總督府官報』, 1912.05.29., 1913.12.15.; 직원록자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96) 1915년 『釜山日報』의 기사를 보면, 마에다 에이키치(前田榮吉)와 마에다 에이이치(前田榮一)는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97) 『釜山日報』, 1915.04.17., 『釜山日報』 1915.04.21.

98) 『釜山日報』, 1915.04.27.

99) 杉山萬太, 앞의 책, 1912. 이 책은 쪽 번호가 시작되기 전, 당시 진해 유력자들의 사진과 설명을 제시하는 데 10쪽 가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오쓰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다.

교조합위원을 2회 거친 뒤 학교조합관리자가 된 인물이었다. 노자키는 진해에서 학교조합뿐만이 아니라 면장, 읍회의원, 도회의원 등의 공직활동을 이어 나가게 된다. 그 외에도 진해 제1금융조합장, 양잠조합장 등으로도 활동하였다.¹⁰⁰⁾

1911년 해군대좌로 시작된 진해학교조합관리자는 총독부 관리를 거쳐 1916년에는 시가지의 다양한 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실업가로 나타났다. 1919년에 이르러선 지역 정치·행정가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먼저 진해 시가지의 관할권이 해군에서 총독부로 넘어가며 지방행정체도를 비롯한 ‘학교조합령’이 정비된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1911년 오카노 해군대좌가 관리자가 되었던 때는 ‘학교조합령’이 개정되기 전으로 학교조합에 대한 법령이 완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912년 총독부로 진해의 행정 관할권이 넘어간 이후에는 총독부 서기가 학교조합관리자로 나타나게 된다. 1914년은 ‘부제’ 시행으로 총독부 아래 지방행정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했으며, ‘학교조합령’ 또한 개정령을 통해 보다 완성된 형태로 갖추어지게 되었다.¹⁰¹⁾ 이 시기 이후 학교조합관리자로는 민간 실업가인 오쓰보 젠우에몽이 등장하여 ‘진해학교조합’을 이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17년 ‘면제’ 시행으로 ‘진해학교조합’이 기존의 다양한 사업수행능력을 잃고 교육목적만을 위한 단체가 된 이후, 교사 출신의 지역 정치·행정가인 노자키가 학교조합관리자가 되었던 것이다.

‘진해학교조합’ 관리자는 설립 당시에는 제국일본해군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후 총독부 관료들이 자리하였으나, 1915년에 민간 실업가라는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1919년 무렵에는 조합의 사업 능력이 교육으로 한정된 것과 동시에 관리자 또한 교사 출신의 지역정치·행정가가 되었다. 이처럼 ‘진해학교조합’은 행정체계를 비롯한 진해 시가지의 상황과 직결되어 관리자도 변화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진해학교조합’의 학교조합관리자와 함께 조합을 구성하고 있던 평의원에 대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선거로 선출된 평의원의 존재는 학교조합이

100) 『朝鮮功勞者銘鑑』, 185.

101) 조미은, 앞의 글, 2012, pp.228-229.

공공단체로서 공선의 의결기관을 두고 완전한 자치제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을 나타낸다.¹⁰²⁾ 여기에서 나타난 진해 시가지의 의결기관으로 존재했던 ‘진해학교조합’의 1911년부터 1916년까지 36명의 평의원에 대해서는 <별표1>로 정리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을 살펴보면 그 직업에 대해 다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건축자재판매업이나 토목공사청부업자와 같은 실업가가 있는 한편, 교육가와 식료품상도 보인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¹⁰³⁾를 통해 평의원의 이름을 검색해 본 결과, 1911년부터 1916년까지의 평의원 중에 총독부 소속 관료로는 1919년 학교조합관리자가 된 노자키만 나타났다. ‘진해학교조합’ 평의원 중에는 1919년 설립되는 ‘진해수산(鎭海水産)’의 대주주로 자리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¹⁰⁴⁾ ‘진해수산’에는 ‘진해학교조합’의 2회와 3회에서 평의원이 되었던 마쓰오 시게노부(松尾重信)가 대표로 있었으며,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 중 노자키 쓰네조(野崎常藏), 미야시타 이치에이(宮下市衛), 미쓰나리 구키치(光成久吉), 엔도 다모쓰(遠藤保)가 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¹⁰⁵⁾ 이를 볼 때, 위 평의원들은 재력가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 평의원의 직업과 소속 등을 통한 사회적 활동 내역을 볼 때, 상당수가 시가지 재력가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들은 학교조합뿐만이 아닌 시가지의 다른 단체에도 많이 속해 있었다. 이 수는 점점 증가하여 1916년 ‘진해학교조합’ 구성원 중 관리자를 비롯한 평의원의 상당수가 같은 해 4월 15일의 ‘진해위생조합’¹⁰⁶⁾이나 1915년 4월 17일 구성된 ‘진해번영회’¹⁰⁷⁾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102) 조미은, 앞의 글, 2010, p.122.

103)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직원록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대한제국,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정부 초기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104) ‘진해수산(鎭海水産)’은 1919년 3월1일 경상남도 창원군 진해면에 수산업을 업종으로 채택하고 세워진 회사였다. 이 회사는 크게 여섯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경영, 2) 어업자, 중매인에게 자금대출, 3) 어업자에게 물자공급, 4) 수산물 제조 및 양식업, 5) 운송취급업, 6) 船具漁船의 대여.(『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p.113)

105)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p.113.

106) 大坪善右衛門, 松尾重信, 光成久吉, 野崎常藏, 久富鐵一 다섯 명은 ‘진해학교조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2회와 3회에 계속하여 평의원에 당선된 토목공사청부업자 마쓰오 시게노부가 ‘진해만기선’ 과 ‘진해수산’ 의 대표이면서 1915년 ‘진해변영회’ 회장이었던 점은 마쓰오가 진해 시가지에서 특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점을 시사한다. 마쓰오는 ‘호쿠리쿠구미(北陸組)’¹⁰⁸⁾라는 토목회사 대표로서 1910년부터 진해에서 이를 경영하여, 1917년에는 ‘진해학교조합’ 평의원인 동시에 ‘진해위생조합’ 조합장, 부산상업은행 감사역, ‘진해변영회’ 회장을 역임하였다.¹⁰⁹⁾ 마쓰오 시게노부는 오쓰보 젠우에몽과 함께 1910년대 진해 시가지에서 다양한 조합을 이끌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해학교조합’ 평의원들 다수는 재력가였으며, 1916년 제3회 ‘진해학교조합’ 에 이르러선 시가지의 다양한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교조합관리자들이 점차 시가지 다양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로 변화해간 것과 같이, 평의원 역시 시가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진해에서 학교조합관리자의 성격은 총독부 아래의 지방행정 정비와 시가지 상황을 반영하여 해군에서 총독부 관료로, 그 다음에는 민간 실업자에서 교육가 출신의 지역정치가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교조합관리자는 점차 시가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물들이 자리하게 되었다. 평의원 역시 선거가 거듭될수록 시가지의 다양한 단체에 속해있는 인물들이 당선되었다. 이것은 ‘진해학교조합’ 이 시가지의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치기관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1917년 교육목적의 단체로 그 사업기능이 한정되기 전까지 ‘진해학교조합’ 은 시가지의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자치단체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합’ 에 속해 있으면서, ‘진해위생조합’ 에도 속해 있었다.

107) 大坪善右衛門, 松尾重信, 光成久吉, 佐藤彬, 野崎常藏, 西川大郎一 여섯 명은 ‘진해학교조합’ 에 속해 있으면서 1915.04.17. 구성된 ‘진해변영회’ 에도 속해 있었다.

108) 호쿠리쿠구미는 마쓰오 시게노부가 1904년 조선 평양으로 와서 개점한 토목회사이다. 1910년에 진해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회사 설립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1)토목건축 청부 및 공사 설계감독, 2)勞力 및 물품공급.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朝鮮功勞者銘鑑』, 118 ; 『신사명감』, 354.)

109) 『朝鮮功勞者銘鑑』, 118 ; 『신사명감』, 354.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의 진해 3차 토지대여를 통한 기본재산 축적과 조합비의 부과를 통해 그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며, 진해 시가지 간접경영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가지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뿐만이 아니라, 시가지 유력자가 구성원으로 자리했던 것도 영향이 크다.

다음으로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시가지의 다양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했던 조합회의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진해학교조합’의 활동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해학교조합’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2. ‘진해학교조합’의 활동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의 진해 3차 토지대여에서 받은 시가지와 산림을 기본재산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조합비를 거둘 수 있었다. ‘진해학교조합’은 이를 기초로 학교조합회에서 개최한 조합회의를 통해 예산과 관련된 일들을 집행하였다. 학교조합회는 학교조합의 의결기구로,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된 평의원 12명과 학교조합 관리자를 그 의장으로 하였다.¹¹⁰⁾ ‘진해학교조합’의 활동은 학교조합회의 회의내용을 골자로 하여 진해 시가지에서 행해졌다.

여기에선 ‘진해학교조합’의 의결기구인 학교조합회 선출과 조합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진해학교조합’ 조합원들의 의무였던 납세와 권리에 해당하는 선거권은 학교조합회 선출의 토대가 되었다. 다음은 조합비와 관련된 1915년 4월 「진해현호조사(鎭海現戶調査)」라는 기사이다.

해당 학교조합에서는 1915(大正4)년도 제1기 부과조사를 위해 古川조합재무주임이 주가 되어 저번부터 이 조사의 임무를 맡았다. 이번 현호(現戶)조사를 종료하여 각각 고지서를 발한다. 그 조정액을 듣자하니 다음과 같다.¹¹¹⁾

110) 『朝鮮·台灣·樺太·關東州ノ地方制度概要』, 拓務省管理局, 1930. pp.20-21.

종 별	금 액	인 원
호 별	717.44 엔	1,292 명
영업별	498.43 엔	624 명
계	1,255.87 엔	1,916 명

출전) 「鎭海現戶調査」, 『釜山日報』, 1915.04.24.의 기사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다.

위의 기사를 통해 ‘진해학교조합’이 호별과 영업별로 구분하여 조합원들에게 조합비를 부과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서 조사한 1915년 진해 일본인 인구가 4,947명이었고 호구수가 1,299호임을 고려할 때, 실제 진해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조합비 납부 대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이 시가지 일본인에게 조합비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조합령’ 제정령 제22조에서 조합비와 부역·현품을 부과·징수 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었던 데 기인한다.¹¹²⁾

조합원들은 ‘학교조합령’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나, 납세자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은 1916년 2월 제3회 ‘진해학교조합’ 선거와 관련된 기사이다.

(전략) 선거회장인 진해좌 부근 일대의 가옥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쓰여 각 운동자는 오전 7시 무렵부터 몰려들어 유권자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윽고 오전 8시부터 투표를 개시하여 오후 4시가 되어 마감하였다. 약 30분 휴식 후 개표에 착수하였는데 2명의 낙선자가 나왔고 각 후보자는 그 결과 여하에 긴장하여 모두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개표를 끝낸 것은 오후 6시였는데 유권자 수 422명 중 투표총수 362표 중 무효 5표로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당선자 : 45표 松尾末太郎(新), 44표 山田義禮(新), 36표 宮下市衛(新), 32표 森澤藤次郎(新), 32표 白木爲次郎(新), 28표 松尾重信(再), 27표 光成久吉(再), 24표 佐藤彬(新), 20표 野崎常藏(再), 18표 西川大郎一(再), 15표 久富鐵一(再), 15표 岡本千代松(新).¹¹³⁾

1915년 4월 조합비가 부과된 것은 호별로 1,299명이었던 것에 비해 유권자는 422명으로 한정되었다. 이 422명은 1915년 진해 일본인 인구인 4,947명의 8.53%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도 안 되는 일본인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

111) 「鎭海現戶調査」, 『釜山日報』, 1915.04.24.

112) 『朝鮮·台湾·樺太·關東州ノ地方制度概要』, 拓務省管理局, 1930. pp.22-23.

113) 「鎭海の選挙結果」, 『釜山日報』, 1916.02.18.

할 수 있다.¹¹⁴⁾ 이처럼 조합원 중에서도 유권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10% 정도였다.

‘진해학교조합’의 선거유권자 자격은 납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부산의 경우, 학교조합 선거유권자 자격을 25세 이상의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로 1개년 이상 부산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호별 할 부과금을 5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1925년에는 이 납세액 제한이 철폐되고 부과금을 납부하는 자에게 선거유권자의 자격을 부여했다.¹¹⁵⁾ 부산 학교조합의 상황은 당시 선거권이 납세에 기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진해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납세하고 있는 자에게 선거유권자 자격이 주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진해에서 선거유권자의 선정은 조합원에게 조합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미 행해졌다. ‘진해학교조합’은 호별 할, 영업 별로 조합세를 부과하기 전에 등급 심사회를 거치고 있었던 것이다.¹¹⁶⁾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 선거권은 조합원 중에서도 일정 수준의 납세가 가능한 10% 미만의 일본인에게 주어졌다. 이들의 손으로 구성된 ‘진해학교조합’ 평의원들은 그 직업과 소속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당수가 재력가로 진해 시가지 유력자였다. ‘진해학교조합’이 적극적으로 토지대여사업을 수행하고, 시가지 경제와 관련된 선후책 강구에 주도적이었던 점은 조합 평의원들의 재력가라는 성격과도 관련이 깊다.

여기에 아래의 <표5>를 통해 당시 진해의 직업별 비율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5> 1915년 3월 진해의 직업별 조사

직종	관리	공리	교원	기자	신관	승려	의사	산파	총계
수(명)	85	60	13	2	1	10	6	8	5,028 (명)
비율(%)	1.69	1.19	0.26	0.04	0.02	0.20	0.12	0.16	
직종	농업	상업	공업	어업	잡업	예기작부	노동자	무직	
수(명)	651	1,800	80	160	20	70	454	1,600	
비율(%)	12.95	35.80	1.59	3.18	0.40	1.39	9.03	31.82	

출전) 『釜山日報』, 1915.04.18.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114) 1946년 일본신헌법 제정 전까지 일본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1915년 진해 일본인 남성 인구는 2,353명이었으므로 17.93% 정도이다.

115)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Vol.5 5』, 부산경남사학회, 2005, pp.193-195.

116) 『釜山日報』, 1915.02.30.

1915년 3월, 진해의 총인구 5,028명 중에 35% 이상을 차지하는 1,800명이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상업 종사자가 전체 35%를 차지하는 만큼, ‘진해학교조합’의 조합원들은 진해 시가지의 경제 상황에 대해 민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향이 반영된 ‘진해학교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부과하고, 그 금액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얻어 학교조합의 평의원을 뽑고 있었다.

상업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인구 비율이 높았고, 재력가가 평의원에 대다수 포진하고 있던 ‘진해학교조합’이 의결 사항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결기관 학교조합회 의결사항〉

1.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것.
2. 세입출예산을 정하는 것.
3. 결산보고를 인정(認定)하는 것.
4. 기본재산·특별기본재산 및 적립금액 등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5.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
6. 재산 및 영조물의 관리방법을 정하는 것. 단,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것은 이에 한하지 않을 것.
7.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조합비 및 부역 현품 및 그 부과 징수에 관한 것.
8. 조합채(債)에 관한 것.
9. 세입출예산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새로이 의무를 부담케하고 또는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
10. 조합에 관계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것.

조합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의 일부는 그 의결에 따라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전결(專決)처분 할 수 있도록 함.¹¹⁷⁾

학교조합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10개의 항목 중 대부분은 예산 및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이었다. 이는 학교조합이라는 의결기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시가지의 예산관련 항목들이었음을 뜻한다. 1915년과 1916년 ‘진해학교조

117) 『朝鮮·台灣·樺太·關東州ノ地方制度概要』, 拓務省管理局, 1930, pp.21-22.

합’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의결하는 조합위원회·조합협의회의가 각각 한 달에 한번 이상 개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¹⁸⁾ 그 장소는 주로 ‘진해학교조합’ 사무소(現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송학동)로, 회의에서 의결된 예산 편성과 정과 그 내용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¹¹⁹⁾

진해학교조합에서는 최근 1915(大正4)년도 세출입 예산의 편성 중인데 1914(大正3)년도 예산 총액 30,426엔에 대해 약 1,000엔에서 3,000엔이 감소될 것이며, 그 주된 것은 시황부진으로 인해 각 부과금의 저하 약 3,000엔, 대지료(貸地料) 약 5,000엔을 줄여 민력휴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조합회의에 부치기 전, 미리 감독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머지않아 수속 할 것이라 하므로, 민력휴양 정도 여하는 발표되지 않고서는 그 신의를 담보할 수 없겠지만 시민부담액이 다소 감소될 것은 사실이라 한다. ¹²⁰⁾

‘진해학교조합’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과금과 시가지 대여료를 저하하여 조합원의 부담액을 줄이고자 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시가지 재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조합회의를 통해 처리해나갔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에서는 23일 오후1시부터 동 조합 사무소 누상에서 토지 전대료율개정에 관한 건, 조합비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건, 1915(大正4)년도 조합세입출 총예산 및 토지대여지계약 개정에 관한 건을 부쳐 논의할 것이라 한다. ¹²¹⁾

‘진해학교조합’ 조합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토지 전대료율 개정, 조합비 부과에 관한 이의 청원, 조합세입출의 총예산 및 대여지 계약개정과 관련된 것 등이 이루어졌다. 조합회의 내용은 시가지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동

118) 1915년의 상반기의 경우 ‘진해학교조합’의 조합위원회·조합협의회의가 개최된 날짜는 다음과 같다. 1915.01.28., 1915.02.02., 1915.02.10., 1915.02.20., 1915.03.23., 1915.04.17., 1915.04.27., 1915.05.04., 1915.05.25., 1915.06.23., 1915.06.28.

119) 「鎮海通信-組合豫算の内容」, 『釜山日報』, 1915.02.19., 「馬鎮日刊-鎮海組合予算認可」, 『釜山日報』, 1915.06.10.

120) 「鎮海通信-組合豫算の内容」, 『釜山日報』, 1915.02.19.

121) 「鎮海通信-学校組合会」, 『釜山日報』, 1915.03.25.

되며 특히 조합 기본재산인 토지대여와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는 “진해학교조합의 전대토지요금은 본년도 약 6,400엔의 수입예산을 계상(計上)하여 조합 유일의 세입재원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¹²²⁾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1915년 ‘진해학교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조합비는 호별 717.44엔과 영업별 498.43엔으로 총 1,255.87엔이었다. 이에 비해 조합에서 계상한 토지대여료는 약 6,400엔으로 총 조합비의 5배에 해당했던 것이다. 조합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대여와 관련된 내용은 예산 편성만큼이나 중요한 회의 내용으로 다루어졌다. 1915년 3월에서 9월까지 ‘진해학교조합’의 조합회의에서는 토지대여 상황 보고와 함께 대여료의 납입액, 대여지 규정의 개정안 제출, 대여지 신청 처리, 대여료 미납자에 대한 대처 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¹²³⁾ 한편, 이 시기 ‘진해학교조합’은 동양척식회사로부터 차입 조합채를 갖고 있었던 것을 조합회의 내용에서 확인하였다.¹²⁴⁾ 이 조합채의 상환 시기와 금액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¹²⁵⁾

‘진해학교조합’은 예산을 비롯한 조합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면서 토지대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해나가고 있었다. 그 중 학교와 관련된 사업으로 1915년 2월 당시 토목국에서 착수 중이던 상수도 철관을 공립소 학교 내로 연장하여 급수와 방화 양쪽의 수도 설비를 하고자 신청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¹²⁶⁾ 학교 시설을 완비해나가는 교육 사업 외에도 ‘진해학교조합’의 이름으로 메이지 신궁(明治神宮)에 소나무 두 그루를 진헌(進獻)하는 등 대외사업도 행하였다.¹²⁷⁾ 위생 면에 있어선 ‘진해학교조합’에서 건축비 3,000여 엔을 투자하여 설치한 진해전염병사를 당시 시가지의 다른 단체인 ‘진해위

122) 「鎮海轉貸地料未納」, 『釜山日報』, 1915.07.09.

123) 「鎮海通信-市街地貸与の状況」, 『釜山日報』, 1915.03.30., 「鎮海宅地料納入期」, 『釜山日報』, 1915.04.22., 「鎮海貸地規定」, 『釜山日報』, 1915.04.29., 「鎮海貸地狀況」 『釜山日報』, 1915.04.30., 「鎮海の轉貸地統計」, 『釜山日報』, 1915.05.27., 「鎮海轉貸地料未納」, 『釜山日報』, 1915.07.09., 「鎮海轉貸地料」, 『釜山日報』, 1915.07.27., 「鎮海轉貸地現況」, 『釜山日報』, 1915.09.26.

124) 「鎮海組合債償還問題」, 『釜山日報』, 1915.04.28.

125) 「鎮海組合債償還問題」, 『釜山日報』, 1915.04.28., 「鎮海学校組合協議会」, 『釜山日報』, 1915.05.01., 「鎮海組合債償還問題」, 『釜山日報』, 1915.05.06.

126) 「組合協議会」, 『釜山日報』, 1915.02.13.

127) 「鎮海の進獻樹木」, 『釜山日報』, 1915.08.19.

생조합'에 무상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다.¹²⁸⁾ 그 외에도 '진해학교조합'의 기본재산에 속하는 산림에서 소나무를 손질한 뒤 나온 2만과 가량의 삭정이를 모아 매각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었다.¹²⁹⁾

토지대여료와 조합비를 주 수입으로 삼은 '진해학교조합'은 조합회의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시가지의 사업들을 운영해나가고자 하였다. 조합회의에 참석한 '진해학교조합' 평의원은 재력가이자 진해 시가지 유력자들로 시가지 발전에 민감한 성향을 띠고 있었다. '진해학교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들의 상당수 역시 진해 시황과 그 발전에 민감한 상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다. 특히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들이 재력가들로 구성된 점은 '진해학교조합'의 행정적 역할이 시가지 발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진해학교조합'은 군항도시 진해 건설과 함께 급증한 일본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제국일본해군의 지원 하에 설립된 준행정단체였다.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직접 선출된 평의원들로 구성된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으로부터 이양 받은 토지를 재정적 기반으로 교육·위생·토목 등 도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즉, 총독부 하의 지방행정체계가 완비되지 않았던 이 시기 '진해학교조합'은 진해 일본인 사회의 표면적 행정주체로 활동하였다.

<별표1> '진해학교조합' 평의원(1911-1916)

	이름	원적	직업	타단체소속	기타
제1회 1911. 12.28.	赤松東一郎	히로시마현 (廣島縣)	-	번영회	-
	上田末太郎	후쿠오카현 (福岡縣)	건축자재판매업	위생조합	-
	堀江一之	히로시마현 (廣島縣)	-	-	-
	宇都宮壽平	에히메현 (愛媛縣)	-	-	-
	大本宇市	히로시마현 (廣島縣)	중학교사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만기선 대주주·감사

128) 「馬鎮海伝染病舎讓渡」, 『釜山日報』, 1916.04.11.

129) 「鎮海通信-松枯枝 賣却」, 『釜山日報』, 1915.01.22.

	加藤權平	후쿠이현 (福井縣)	-	-	-
	宮崎峯太	오카야마현 (岡山縣)	-	-	-
	石田房次郎	가나가와현 (神奈川縣)	실업가	-	-
	永野仲藏	나가사키현 (長崎縣)	-	-	-
	中山辰次朗	후쿠이현 (福井縣)	-	-	-
	渡邊録造	도쿄부 (東京府)	-	-	-
	西山義成	나가사키현 (長崎縣)	-	-	-
제2회 1913. 02.	黒岩東次郎	-	-	-	-
	土井伊太郎	-	-	-	-
	神谷貞順	-	-	-	-
	村上四郎	-	-	-	-
	松尾重信	이시카와현 (石川縣)	토목공사청부업자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진해만기선 대주주·감사
	九鬼長楠	-	-	-	-
	野崎常藏	-	-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西川太郎一 회계검사위원	효고현 (兵庫縣)	식료품상	-	-
	光成久吉 회계검사위원	-	-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久富鉄一	사가현 (佐賀縣)	-	위생조합	-
遠藤保	-	-	-	진해수산대주주	
原田芳太郎 (竹内虎槌)	-	-	-	-	
제3회 1916. 02.	森澤藤次郎	후쿠오카현 (福岡縣)	토목공사청부업자	-	-
	山田重豊	-	-	-	-
	松尾末太郎	홋카이도 (北海道)	-	-	-
	西川太郎一	효고현 (兵庫縣)	식료품상	-	-
	白木爲次郎	-	-	-	-
	岡本千代松	-	-	위생조합	-
	久富鉄一	사가현 (佐賀縣)	-	위생조합	-
	光成久吉	-	-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松尾重信	이시카와현 (石川縣)	토목공사청부업자 /北陸組이사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진해만기선 대주주·감사
	宮下市衛 (宮下一衛)	이시카와현 (石川縣)	요리점주인 /北陸組감사	-	진해수산대주주
野崎常藏	-	교사 출신	위생조합, 번영회	진해수산대주주	
佐藤彬	-	-	번영회	-	

출전) 岡萬吉, 『鎮海要覽』, 騰龍閣, 1926, pp.81-83. ; 『釜山日報』(1914-1916) ; 『朝鮮銀行會社要錄』, 1921. 의 내용을 취합하였음.

제3장 ‘진해학교조합’ 과 일본인 시가지 발전 방향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 진해 건설 초기, ‘진해학교조합’은 제국일본해군 주도 하의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진해 일본인 사회의 표면적 행정주체로 활동하였다.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진해학교조합’이 도시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토지대여사업뿐만이 아닌 진해만을 둘러싼 제국일본해군의 상황변화와도 관계가 깊다.

군항도시 진해의 시가지 경영·경제 상황은 한반도 내 상황뿐만 아니라 제국일본해군을 비롯한 일본 국내 사정까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진해학교조합’을 비롯한 진해 일본인 사회의 발전 규모와 그 방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장의 제1절에서는 군항도시 진해에 대한 제국일본해군의 전략변화와 이에 대한 ‘진해학교조합’의 대응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2절에서 도시발전방향에 대한 ‘진해학교조합’을 비롯한 진해 일본인 사회의 대응을 도시위생문제 중심으로 고찰하여 군항도시 진해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제1절 ‘진해학교조합’ 과 제국일본해군

1. 제국일본해군과 진해 시가지 발전

제국일본해군에 의해 군항도시로 건설된 진해만이 전략적 요충의 한 지점으로 부상한 것은 1898년 7월 가쓰라 타로(桂太郎)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에게 보고한 문서에서였다.¹³⁰⁾ 가쓰라는 청일전쟁 후, 한국에 두고 후퇴했던 일본의 세력을 만회하기 위해 일본의 군대를 한국에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상륙지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세보 군항, 다케시키 요항부 등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국일본해군은 진해만을 주목하게 되었다.¹³¹⁾ 이후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을 앞두고 일본大本영(大本營)¹³²⁾에서는 일본해군 제3함대로 하여금 진해만을 점령하여 조선해협을 경계하라는 명령을 발하였고, 이때부터 진해만은 사실 상 일본군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다.¹³³⁾ 이와 같이 진해만은 20세기 초 일본이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상정하여 제국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그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며 제국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로 등장하였다.¹³⁴⁾

러일전쟁 후, 제국일본해군은 진해만을 그 근거지로 삼기위해 대한제국에 군항으로 요청하였고, 1906년 8월 진해만은 군항으로 고시되었다.¹³⁵⁾ 이후 1907년 일본의 국방방침은 러시아뿐만이 아닌 미국, 청국을 가상적국으로 상정하며, 특히 해군의 경우에는 새롭게 미국을 목표로 그 해군력과 대항하기 위해 군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¹³⁶⁾ 제국일본해군의 지휘 아래 군항도시 진해 건설을 위해서 진해만시설조사위원회가 진해만 군항경역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처럼 해군 군비가 확장되던 시기였다.¹³⁷⁾

그러나 제국으로서의 영역 확장을 도모했던 군의 입장과 달리 일본 국내 상

130) 「韓国慶尙道馬山浦ニ於テ約五万坪ノ地所ヲ購入シ度件」, 1898.07. (高秉雲,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雄山閣出版, 1987, pp.177-179.)

131) 竹国友康, 앞의 책, pp.44-45.

132) 大本영(大本營)은 戰時 최고통수기관으로서 천황 아래에 설치된 기관이었다.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 中央公論社, 1985, p.70.) 육군과 해군을 함께 통수했던大本영의 성격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경과하며 조금씩 변화하나,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133) 高秉雲,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雄山閣出版, 1987, p.229.

134) 메이지 유신 이후 러일전쟁까지의 일본의 군비는 막연하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가상적국으로 하여 정비되어 왔다. 육군은 물론 해군도 러시아 해군을 대상으로 하는 군비를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上) 戰前篇』, 에이앤씨, 2012, p.192.)

135)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研究』, 일지사, 1982, p.345.

136) 후지와라 아키라 저, 앞의 책, pp.192-193.

137) 『鎮海永興關係書類』, 2-7.

황은 전후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18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20년 이상 추진된 군비 확장과 3번이나 치러진 전쟁(청일전쟁, 의화단사건, 러일전쟁)의 결과로, 국고의 정화 준비는 고갈되고 일본 국민은 증세, 국채와 불황으로 피폐의 극에 달해 있었던 것이다.¹³⁸⁾ 뿐만 아니라, 러일전쟁으로 막대한 희생과 부담을 강요당했던 일본국민들은 자신의 생활과 국가의 운명이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였고, 국가와 사회에 생활에 대한 요구를 분출시키게 되었다.¹³⁹⁾ 이러한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 제국주의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군비확장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⁴⁰⁾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1907년 4월 ‘제국국방방침’이 ‘육주해중’이라는 형태로 결정되었고, 제국일본해군은 1911년 중국에서 신해혁명이 발발하면서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긴 육군의 대륙 세력판도 확장에 호응하게 되었다. 이로써 미국을 주로 하는 태평양 지역보다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남부 연안해역 확보에 주력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¹⁴¹⁾

제국일본해군의 전략방향이 바뀔에 따라 지정학적 이점으로 인해 제국일본해군의 군사기지로 설정되었던 진해만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다소 하락하게 되었다. 국방전략이 중국남부 연안해역을 중시하는 것으로 수정되며, 러일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았던 진해만에 대한 평가가 바뀌게 된 것이다. 당시 제국일본해군의 진해만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진해만에 군항을 만들고 진수부를 두려는 본 의견에는 동의를 표하기 어렵다. 지금 같은 방비대사령관이거나 아니면 요항부사령관으로 충분하다. 나아가 마이즈루, 뤼순도 이를 요항부로 개정하는 것이 지당할 것이다. 그리고 본 군항처럼 사세보보다 북쪽을 선정하기보다는 남쪽으로 돌려 오키나와 타이완 등지에서 적

138)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저, 서민교 역,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문학사, 2013, p.91.

139) 스즈키 마사유키 저,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pp.118-119.

140) 일본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과 남만주의 지배자가 되면서 구미 제국주의 강국의 대등한 경쟁상대로서 제국주의 시대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쟁 직후부터 육해군 구비의 대확장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上) 戰前篇』, 에이앤씨, 2012, p.197.)

141) 류교열, 「근대 일본의 「해양진출론」과 최근의 「해양국가」 구상」, 『日語日文學研究 vol.52 No.2』, 韓國日語日文學會, 2005, p.215.

당한 지점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금 급한 일이라 생각한다.¹⁴²⁾

이 문서는 일본 해군성에서 1910년에서 1912년 사이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데(井出)라는 직인을 통해 이러한 성을 가진 인물이 작성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위에서 진해만을 요항부로 하며, 국방 전략을 위한 지점을 “북쪽을 선정하기보다는 남쪽으로 돌려” 서 선정할 것을 언급하는 점은 러일전쟁 당시에 비해 진해만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이 시기 진해 군항도시 건설은 1910년 1월의 ‘진해군항시설지실지조사보고(鎭海軍港施設地實地調査報告)’에 근거하여 직접적인 군사시설부터 하나씩 진척되고 있었다. 군항건설과정에서 군사시설이 들어서자, 제국일본해군은 곧이어 1911년에 군사지역의 배후지가 될 시가계획의 출발점으로서 토지대여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1911년이라는 시기는 일본에 의해 한국이 강제로 병합된 바로 다음해로, 한반도에 대한 식민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가 설치된 직후였다. 진해만은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미 1907년 4월에 군항 설치를 위하여 제국일본해군에게 수용된 지역이었다.¹⁴³⁾ 따라서 총독부가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한 1911년에는 이 지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제국일본해군과 총독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911년 1월 9일 아사히신문(朝日新聞) 기사를 통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진해군항의 시가계획에 있어 차지를 출원한 자 7,000명에 달하며, 그 중 출원자 및 노동자는 마산에서 체재하며 그 허가여부에 대한 통고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허가여부는 먼저 해군성에서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권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우선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출원자에 대한 허가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¹⁴⁴⁾

이 기사에서는 진해 토지대여에서 출원을 받기위해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선 언급하고 있다. 대여를 위해 모여든 7,000명이란

142) 『鎭海永興關係書類』, 6-2.

143) 『鎭海永興關係書類』, 11-4.

144) 『朝日新聞』, 1911.01.09.

숫자는 1911년 진해의 인구가 3,500명 정도였던 것을 상기해보면, 토지대여로 인해 엄청난 인과가 진해로 몰려든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때, 해군성과 총독부 사이에 진해 관할권 분쟁이 벌어짐으로써 토지대여사업의 진행이 더뎠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관할권은 1912년 3월 ‘해군용지 수수에 관한 총독부 부칙의 위원 이해서(海軍用地ノ授受ニ關スル總督府府則ノ委員心得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1. 조선에서 아래 소재의 해군용지는 1912(明治45)년도부터 전부 조선총독부의 소관으로 함.
진해, 거제도, 가덕도, 양산군고포(梁山郡菰浦), 부산 아미산 및 절영도, 팔구포-목포해상(八口浦-木浦ノ沖), 인천월미도 (仁川月島), 영흥, 원산춘일정(元山春日町)
2. 前項 토지 내 해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함께 장래 유보해야하는 지구는 이런 경우를 구별하여 인계 종료 후 본부에서 직접 해군성의 관할로 이전 할 것.
3. 제2항 이외의 지구는 전부 총독부 각부의 주관에 따라 이를 관리 할 것.
4. 제3항의 지구 관리를 細別하면 아래와 같음.
진해 시까지는 총무부(總務部)의 관리
논(田), 밭(畑), 갈대밭(蘆田), 염전(塩田) 등은 도지부(度支部)의 관리
산림(山林), 원야(原野), 미간지(未墾地) 등은 농상공부(農商工部)의 관리
(후략)¹⁴⁵⁾

위의 1항과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진해 시까지는 1912년에 총독부 관할로 이전되었고 군항시설이 들어서 있는 직접적인 군사지역만이 해군성에 돌아오게 되었다. 시가지의 관할권이 해군에서 총독부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1911년 4월 1일, 진해 1차 토지대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토지대여를 시작으로 진해는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선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가미이즈미 도쿠야(上泉德弥) 해군 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12년 1월 아사히신문(朝日新聞)에 실린 「진해만의 발달(鎭海湾の發達)」이란 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145) 『鎭海永興關係書類』, 16-6.

진해만 현동은 지난 가을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이 방비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예의(銳意) 토지번영을 기도하여 지금은 면목일신 한테다 거기에 제1회 토지대여를 행하자 겨우 8개월 사이에 6백여 가옥이 건설되고, 계속해서 제2회 대여를 행하자 현재 다다미 약 1장에 3엔까지 집세가 올라, 부근의 조선부락에 사는 3천명 가량의 군민은 머지않아 이 신시가로 이주하려는 형국으로 90개에 달하는 각종 도쿄조합과 같은 것은 새롭게 대여를 얻어 모범적 대관(大觀)공장을 건설하고자 하고 있어, 낙성 후에는 남선실업계의 중견적인 지위에 서게 하려는 포부인데, 각종행정 및 교통기관도 점차 완비될 것이다.¹⁴⁶⁾

위 기사를 통해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이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뒤 토지대여로 인한 시가지가 번성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가옥 건설과 인구 증가, 공장의 건설이라는 도시발전상황을 설명하며 행정과 교통기관이라는 인프라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1912년까지 진해 시가지의 발전은 가미이즈미가 주도했던 토지대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토지대여에 따른 진해의 호황은 1912년 상반기까지 지속되었고, 그 해 5월 22일에는 도쿄에서 25명의 기자단이 진해시찰단으로 와서 2박 3일간 머물렀다.¹⁴⁷⁾ 기자단이 돌아간 6월,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과 같은 일본 중앙지에서는 진해의 발전과 관련된 기사를 각각 7회, 8회씩 연속적으로 쏟아냈다.¹⁴⁸⁾ 당시 기사에서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은 진해 발전의 주도적 인물로 부각되고 있었다. 다음은 1912년 6월 20일의 「진해창원기(7) 호한 가미이즈미 도쿠야(好漢上泉德弥)」라는 기사이다.

진해번창기, 여기에 1회를 추가하여 우리들은 여기에 진해군항사령관 해군소장 가미이즈미 도쿠야씨를 소개하려 한다. 가미이즈미가 없었다면 진해는 없고, 어떤 의미로선 진해는 조선의 진해가 아닌 가미이즈미의 진해이다. 가미이즈미를 연구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진해를 이해할 수 없다. (중략) 가미이즈미씨의 다소 거친 수법과, 데라우치(寺内) 백작의 매우 집약적인 수법은 식민지 정치 상 적절하게 대조된다. 물론 진해 시가지는 4월 1일부터 총독부 관할로 옮겨졌으며 가미이즈미씨의 본직은 군항사령관에 있다고 하여도, 사실 진해와 가미이즈미

146) 『朝日新聞』, 1912.01.25.

147) 『朝日新聞』, 1912.05.23.

148) 『読売新聞』에서는 「鎮海繁昌記」라는 제목으로 1912년 6월12부터 20일까지 7회에 걸쳐 진해 시가지의 발전에 대하여 연재하였다. 『朝日新聞』에서는 「鎮海の開發」이란 제목으로 6월 6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8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도쿠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는 가미이즈미 사령관 각하이기도 하지만, 학교조합관리자이기도 하다. ‘가미이즈미 나으리’도 되는가 하면, ‘가미이즈미 녀석!’으로 불리기도 하는 등, 진해대군항 건설에 시간이 촉박한 것도 있어 더 더욱 진해시가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49)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으로 진해에 왔던 가미이즈미는 진해 시가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며 그 경영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특히 토지대여사업을 토대로 “진해대군항”을 건설하고 시가지를 경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가미이즈미가 주도했던 군항도시 진해의 발전규모는 해군성이 생각한 규모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진해만에 대한 제국일본해군의 전략적 가치가 러일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1910년대에 들어서는 하락하였기 때문에 해군 내에서는 진수부가 아닌 요항부로 남겨두고자 하는 의견도 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의 경제적 불황은 군항건설의 자금문제와 직결되면서 진해 도시건설계획은 기존보다 낮은 단계의 규모로 바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국일본해군의 전략과 달리 가미이즈미는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진해를 대군항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가미이즈미 주도 하의 토지대여사업에 근거하여 활기를 띠게 된 진해 시가지 상황은 1912년 7월 가미이즈미의 전임이 결정되면서 일변하게 되었다. 가미이즈미 전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1912년 7월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요미우리 신문 기사이다.

진해방비대사령관 해군소장 가미이즈미 도쿠야씨가 갑자기 야마다(山田)대좌와 바뀌어 요코스카 수뢰단장으로 좌천된 것은 상당히 해군내부를 놀라게 하였다. 가미이즈미씨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군인으로서 정치적 재간 뿐만 아니라 일대의 총아 財部彪(다카라베 다케시)씨와 그 진급속도를 같이 하는 인재로 장래에 크게 촉망되는 인물이지만, 이런 자는 항상 ‘지나치게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다. 진해의 경영시설 역시도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다. 그가 라둡수 선전에 노력하고 또 진해개발을 위해서는 20만평에 달하는 해군용지를 한 영리회사에 대여하거나 제등만(齋藤灣)을 개방하고 여기에 접속되는 해군용지

149) 『読売新聞』, 1912.06.20.

를 학교조합의 기본재산으로 대여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점은 곧 이번 좌천의 표면적인 이유이다. (후략)¹⁵⁰⁾

위 기사는 가미이즈미 개인의 능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지나치게 앞서가는’ 감이 없지 않다”고 언급하며 좌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라둡수 선전에 노력하고 또 진해개발을 위해서는 20만평에 달하는 해군용지를 한 영리회사에 대여하거나 제등만을 개방하고 여기에 접속되는 해군용지를 학교조합의 기본재산으로 대여하는데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시가지 발전과 직결된 위의 사업을 지나치게 앞서간 경영시설의 “폐단”으로 지적한 점은 가미이즈미의 진해 경영 속도와 규모가 해군성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다음 기사는 같은 시기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역시나 진해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군성 내 가미이즈미의 상황 또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미이즈미 소장 전임의 유래 -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이 이번 요코스카 수뢰단장으로 전보(轉補)됨에 따라 진해시가발전에도 대공황을 초래하게 됨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중략) 그 전임사정을 듣자하니 전적으로 가미이즈미 장군이 그 인순고식한 해군당국이 계획하는 시설에 반하는 대규모 발전책을 생각하고 이 경영이 착착 진척 되고 있다. 얼마 전 동경기자단 일행이 진해를 직접 시찰하여 의외로 발전이 현저한 것과 함께 가미이즈미 소장의 시설이 훌륭함을 칭찬하며 동시에 동 소장은 해군부내에서는 다카라베 이상 가는 인물이라는 듯이 칭찬하자 우연히도 다카라베 차관의 투심을 사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해군성으로서 진해시를 이렇게까지 발전·개발 할 필요가 없다는 극단적인 소극방침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가미이즈미 소장을 요코스카 수뢰단과 같은 한지로 보내버리고 다카라베씨의 심복인 대좌(大佐) 야마다 나라노스케(山田猶之助)씨를 새로운 사령관으로 하여 철저히 가미이즈미 소장의 시설을 파괴하려는 방침이므로 진해대여지는 크게 영향을 받아 대여를 계약하려는 많은 자본가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후략)¹⁵¹⁾

이 기사에서도 가미이즈미에 대한 세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다. 다만,

150) 『読売新聞』, 1912.07.11.

151) 『朝日新聞』, 1912.07.13.

이를 전제로 하더라도 가미이즈미가 주도한 토지대여사업을 통한 진해의 발전과 개발은 해군성의 진해에 대한 청사진과는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발전·개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장이 드러내듯 해군성의 진해에 대한 생각은 이미 1907년 진수부의 설치를 염두에 두고 진해만을 조사하던 때와는 상당히 달라져있었던 것이다. 진해에 대한 청사진이 해군성의 의견과 달랐던 가미이즈미 소장의 전임은 정해진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군성 차관 다카라베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가미이즈미가 질투를 받게 된 것을 제시하는 점에서는 해군성 내 가미이즈미의 정치적 입지를 엿볼 수 있다. 당시 퇴역 해군대장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権兵衛)의 첫째 사위였던 다카라베와 불편한 관계였던 점은, 가미이즈미가 해군성 내 정치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소통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¹⁵²⁾

해군성의 결정에 따른 가미이즈미의 전임이 진해 시가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예정된 것이었다. 가미이즈미의 전임이 결정되자, 가미이즈미의 수완으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해로 오게 된 많은 자본가들이 속속 빠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아래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수완을 신뢰하는 도쿄 및 교토·오사카(京阪)지방 자본가들 의해 계획되어 지금 착착 그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동 사령관이 경질되어 중지를 신청해오는 자들 및 관망하려는 모양새로 돌아선 중요한 사업은 (1) 자본금 500,000엔의 진해 수산사업회사, (2) 500,000엔의 목재회사, (3) 1,000,000엔의 진해미곡거래소, (4) 일본인·한국인(日鮮人) 60명을 받기인으로 최근 이미 2배의 주식 신청이 있는 라돔 회사, (5) 오사카 백십삼은행(百三十銀行), (6) 山形正雄씨의 진해대병원, (7) 200,000엔의 창고회사, (8) 제등만(齋藤灣) 매립 등으로 시민에 대한 영향은 실로 크다.¹⁵³⁾

그 내용을 보면 언급되어 있는 정확한 금액만 합하더라도 최소 2,200,000엔이 넘는 것으로, 1912년 진해 시가 경영비로 계상된 53,000엔의 예산액¹⁵⁴⁾과 비교

152) 야마모토는 1913년에 내각총리대신이 되었고, 다카라베는 이러한 야마모토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이하 해군성 내의 자세한 정치적 관계에 대한 것은 본고의 연구범위를 넘어서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관계가 가미이즈미의 전임과 무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53) 『朝日新聞』, 1912.07.14.

했을 때 그 규모가 상당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국 한달 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리던 진해 시가지에서는 가미이즈미의 전임과 동시에 “시민의 경악과 비판은 극도에 달하여 지가는 약 10분의 1로 하락해 울거나 외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전 시가 마치 불이 꺼진 것과 같은 광경” 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¹⁵⁴⁾

가미이즈미의 전임 소식으로 혼란스러웠던 1912년 7월은 해군에 의한 토지대여가 종료되어, ‘진해학교조합’ 이 해군으로부터 대여한 토지를 다시 민간인에게 전대하고 있던 시기였다. 가미이즈미가 전임 발령이 나기 전까지는 그의 영향으로 도쿄와 오사카 등 각지에서 온 민간인의 출원자 수가 많았다. ‘진해학교조합’ 이 민간인에게 토지를 전대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미이즈미의 전임과 동시에 자본가들 역시 진해에서 빠져나가며 토지대여사업은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그 몫은 고스란히 ‘진해학교조합’ 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일반 시민을 상대로 토지대여사업을 비롯하여 시가지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했던 ‘진해학교조합’ 은 가미이즈미가 사라진 진해 시가지의 활로를 찾아야만 했다.

제국일본해군이 1911년 육군의 대륙 세력판도 확장에 호응하여 대만 중심의 중국남부 연안의 해역 확보에 주력하게 되자, 진해만 군항 건설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그 전략적 가치를 높이 사, 1907년 진수부를 중심으로 건설하고자 했던 군항도시 진해 건설계획은 국방전략방침 변화와 일본 국내의 불경기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한편,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됨에 따라 진해 관할권을 둘러싼 다툼이 총독부와 제국일본해군 사이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 복잡한 시기 군항도시 진해 건설은 당시 진해만 방비대 사령관이었던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의 주도 아래 토지대여사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이 대규모의 토지사업으로 인해 도쿄와 오사카를 비롯한 각지의 자본가가 진해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1912년 5월 도쿄 신문기자단의 방문 이후 이러한 진해토지대여사업의 소식이 해군성에 알려지면서 해군성

154) 『朝日新聞』, 1912.01.14.

155) 『朝日新聞』, 1912.07.12., 『読売新聞』, 1912.07.12.

은 가미이즈미를 전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는 해군성과 가미이즈미가 갖고 있던 군항도시 진해의 발전 수준과 그 속도에 대한 청사진이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 때, 진해에서는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신도시의 대강의 형태가 갖추어졌으며, ‘진해학교조합’이라는 민간단체가 그 사업을 이어받아 전대사업으로 시가지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가미이즈미의 전임으로 인해 자본가들이 빠져나가며 불황에 빠진 시가지의 상황 또한 ‘진해학교조합’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1912년 진해 일본인 사회의 민간단체인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시가지의 불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서게 된 것은 러일전쟁 이후의 제국일본해군 국방방침 전략의 변화로 진해만의 전략적 가치 또한 변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 진해 시가지 변화와 ‘진해학교조합’의 대응

진해만의 전략적 가치는 제국일본해군의 국방전략이 러시아를 비롯한 북쪽이 아닌 중국의 남쪽으로 전략방향을 수정하면서 러일전쟁 전후에 비해 하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토지대여사업을 주도하며 진해를 대규모 군항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가미이즈미의 전임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처럼 진해 시가지의 상황은 제국일본해군의 전략변화와 연동된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제국일본해군의 전략과 내부 인사 문제 등이 뒤얽히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진해 시가지에서 ‘진해학교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가 확인해보고자 한다.

1912년 5월 기자들이 진해 시가지의 발전상황을 보고 돌아간 뒤, 1912년 6월 20일까지 요미우리신문에는 ‘진해번창기’라는 제목으로 7회에 걸쳐 가미이즈미와 진해의 발전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¹⁵⁶⁾ 아사히신문에서도 6월 13일까지 8회에 걸쳐 ‘진해의 개발’이란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었다.¹⁵⁷⁾ 신문을 통해 진

156) 『読売新聞』, 1912.06.12.(1), 1912.06.13.(2), 1912.06.16.(4), 1912.06.17.(5), 1912.06.18.(6), 1912.06.20.(7).

157) 『朝日新聞』, 1912.06.06.(1), 1912.06.07.(2), 1912.06.09.(4), 1912.06.10.(5), 1912.06.11.(6), 1912.06.12.(7), 1912.06.13.(8).

해 시가지 발전 상황이 일본 국내에 알려진 직후, 해군성에서는 가미이즈미의 전임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해의 발전 수준과 개발 정도가 해군성이 의도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향 전환이 시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신문 상으로 가미이즈미 해군소장의 전임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던 가장 빠른 날짜는 1912년 7월 1일이다.

이번에 진해만방비사령관에 부임한 해군대좌 야마다 나라노스케(山田猶之助)씨는 검정사격(檢定射擊)을 마치는 대로 오는 20일 경 요코스카를 출발하여 도쿄를 거쳐 22일 경 착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가미이즈미소장은 사무 인계를 마치고 23일 경 요코스카로 부임할 것이다.(후략)¹⁵⁸⁾

가미이즈미는 1912년 7월 22일을 끝으로 진해방비대사령관에서 물러나 요코스카로 떠나게 되었다. 한편 진해에 가미이즈미의 후임으로 오게 된 야마다 나라노스케는 당시 해군성 차관 “다카라베 계통의 인물”이었다.¹⁵⁹⁾ 진해 시가지에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가지의 번창을 주도해왔던 토지대여사업은 급속도로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¹⁶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해시민들은 가미이즈미의 전임을 시가지 사활문제로 여기며, ‘진해학교조합’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이 임시회의를 통해 가미이즈미의 유임을 청원하는 시민대회를 결의하였고, 진해 시가지의 선후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학교조합관리자 나가노가 시민총대로 정해졌으며,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수상과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해상에게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임을 전보로 청원하기에 이르렀다.¹⁶¹⁾ 아래의 기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해시민들이 해군 당국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가를 짐작 할 수 있다.

진해시민의 사활문제인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10일의 유지대회 결의에 따라 11일 오후 3시 사이와이좌(幸座)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해군당국의 무책임을 논란으로 삼아 공격하고, 격양한 시민은 물론 각 노동자에 이르기

158) 「鎮海事務引繼期」, 『朝日新聞』, 1912.07.01.
159) 「上泉氏左遷事情」, 『読売新聞』, 1912.07.11.
160) 『朝日新聞』, 1912.07.14.
161) 『朝日新聞』, 1912.07.12.

까지 각자 그 휴업하며 선후책에 부심하고 있는데, 해군당국의 무모(無謀)함도 극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¹⁶²⁾

7월 10일 ‘진해학교조합’ 임시회의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임을 위한 시민대회가 다음 날인 11일에 바로 개최되었다. 이 유임 청원이 일어난 것은 가미이즈미의 전임이 바로 시가지의 불황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해시민들이 이 사태를 야기한 “해군당국의 무책임을 논란으로 삼아 공격하고, 격양” 한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11일에 개최된 시민대회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기사이다.

지난 11일 오후 진해 사이와이좌(幸座)에서 개최한 시민대회는 진해시민의 생활문제로 참가한 사람이 무려 6,000여 명으로 회장은 물론 장외와 도로에 이르기까지 입추의 여지없이 사람들이 군집하였다. 너도 나도 연단에 오르거나 혹은 해군 당국의 무책임과 무모무지(無謀無知) 등을 성토했거나 시민의 각오 및 결심을 촉구하는 자도 있어 격양과 분개는 그 극에 달하였다. 이대로 간다면 어떤 위험이 올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대회를 주재한 학교조합관리자인 나가노 슈조씨는 일어나서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만장일치로 박수갈채를 받으며 가결시켰다.

1. 가미이즈미 사령관 각하의 유임을 당국에 탄원할 것.
2. 진해에 대한 중래 또는 향후의 해군방침을 물을 것.
3. 선후책을 강구하고 발전을 꾀하기 위한 번영회를 설립할 것.
4. 당지의 상황을 당국에 진정할 것.
5. 전기(前記) 각 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원 10명을 선정할 것.¹⁶³⁾

가미이즈미의 유임을 “진해시민의 생활문제”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진해시민대회’의 주최자는 당시 ‘진해학교조합’ 관리자였던 나가노였다. 이는 가미이즈미가 토지대여사업을 통해 진해 시가지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 ‘진해학교조합’으로 계승되며 시가지의 간접경영을 주도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해 시가지의 실질적 행정주체로 ‘진해학교조합’이 활동하게 된 것과도 직결된다. ‘진해학교조합’을 대표하는 학교조합관리자는

162) 『朝日新聞』, 1912.07.12.

163) 『読売新聞』, 1912.07.13.

가미이즈미의 전임으로 지금까지의 시가지 발전 방향이 활로를 잃게 되자, ‘진해시민대회’의 주최자이자 ‘시민총대’가 되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를 미루어 보아 ‘진해학교조합’은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실질적 행정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의 관리자 나가노가 주최자였던 이 시민대회의 참가자 수는 6,000명에 달하며 “회장은 물론 장외와 도로에 이르기까지” 설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1912년 당시 진해 시가지 인구가 5,038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시가지 대다수의 일본인이 이 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만큼 가미이즈미의 유입 청원은 진해 시가지 전체 구성원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시민대회에서 결의된 5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입 탄원이 나타난다. 뒤이어 나타나는 4가지 내용은 직접적인 진해 시가지의 불황 타개와 관련된 것들로 진해 시가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국일본해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진해 시민들은 가미이즈미가 기존에 행해왔던 방침들이 그 전임 이후 바뀌거나 중단되는 상태에 직면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가미이즈미의 방침이 시가지 발전과 직결된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진해에서는 가미이즈미의 수완이 크게 작용한 토지대여사업을 기반으로 다른 사업들이 도모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미이즈미의 전임으로 도쿄와 오사카에서 온 자본가들이 속속 빠져나가자 시가지는 급격히 불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진해 시가지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제국일본해군의 협력을 우선 얻을 필요가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해시민운동’에서는 진해 시가지의 정황을 해군 당국에 전달하고, 앞으로의 방침을 묻고자 했던 것이다. 진해 시민들은 이러한 해군의 방향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그 발전을 위해 ‘번영회’를 설치하고, 10명의 실행위원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진해시민대회의 결의 내용을 바탕으로 7월 13일에 하라다 요시타로(原田由太郎)를 포함한 실행위원 일동은 사이온지 수상과 사이토 해군대신 앞으로 가미이즈미 사령관 유입을 재원(再願)하였다.¹⁶⁴⁾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입에 관한

164) 『朝日新聞』, 1912.07.15., 『読売新聞』, 1912.07.15.

청원은 진해 시가지뿐만이 아니라 마산에서도 나타났다. “가미이즈미 사령관 경질은 마산의 번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져 마산 상업회의소는 임시회의를 열어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임청원을 행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⁶⁵⁾ 뿐만 아니라 진해 시가지 부근에 사는 조선인도 “매일의 노동생활에 크게 관계되므로” 사령관 유임청원의 운동을 개시하였다.¹⁶⁶⁾ 가미이즈미 사령관 유임 운동은 진해의 일본인들을 시작으로 하여 진해와 가까운 마산, 진해 시가지 주위의 조선인들에게도 나타났다.

가미이즈미에 대한 유임 청원 운동이 일어난 뒤, 진해에서는 4명의 진정위원이 다카라베 차관과 회견하기 위해 해군성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방문에서 나온 회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해진정위원인 하라다(原田), 나카야마(中山), 이데(井出), 와타나베(渡邊) 4명은 지난 20일 오전 해군성에 다카라베 차관을 방문하여 대략 아래의 네 항목에 대하여 열심히 진정(陳情)하였다. 다카라베 차관도 크게 이 뜻을 헤아리고 양자 간의 의사가 매우 소통될 수 있었다고 한다.

- (1) 가미이즈미 사령관유임청원에 대한 건.
- (2) 토지대여규칙 제35조 개정에 대한 건. 즉 현행 규칙은 표면상으론 토지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제1, 제2 대여도 거의 완성되어 과도기를 경과한 지금 다시 이 규칙을 엄격하게 두는 것은 개발상의 장애가 있다는 점.
- (3) 창진철도(창원-진해간의 선으로 총독부도 이미 예정선으로 하고 있음)를 속성으로 열 것.
- (4) 가미이즈미 전 사령관의 유임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적어도 전 사령관의 시설에 대해 그 의사를 계승하는 방법을 찾을 것.

이중에서 제2 이하의 3항에 대해서는 다카라베 차관도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 듯 여기에 세밀하게 구체적 설명을 붙여 올릴 것을 종용하였는데, 제1항 유임문제에 대해서는 “사안이 군정상 시설에 관해서 일국부(一局部)의 형편 등 고려할 틈이 없으므로 진해 일국부를 위해 이 대망(大綱)을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相談)이다. 하지만 전 사령관이 진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제군의 호의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 청원서는 대신에게 전달할 것” 이라

165) 『朝日新聞』, 1912.07.15.

166) 『朝日新聞』, 1912.07.15.

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일행은 내일 다시 차관과 회견할 것이라고 한다.¹⁶⁷⁾

회견 내용에서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사업과 직결되는 ‘토지대여규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진정 위원인 “하라다(原田), 나카야마(中山), 이데(井出), 와타나베(渡邊)” 중 나카야마와 와타나베는 제1회 ‘진해학교조합’ 평의원이었던 나카야마 다츠지로(中山辰次朗)와 와타나베 로쿠조(渡邊録造)이고, 하라다는 제2회 ‘진해학교조합’ 평의원이었던 하라다 요시타로(原田芳太郎)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진해 시가지에서 토지 대여와 관련된 업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 당국을 제외하면 ‘진해학교조합’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위 회견에서 다카라베 차관은 가미이즈미 사령관 유임 청원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다음날인 7월 23일에는 “대여지의 가옥 준공기는 9개월을 3년으로 연기하고 철도는 속성으로 착수할 것”이 결정되었다.¹⁶⁸⁾ 이처럼 시가지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은 받아들여졌으나, 가미이즈미의 유임은 불가능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진해 시가지에서 시민들과 해군이 사령관의 전임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기에 시민대표이자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진해 시가지에 전개된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해학교조합’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학교조합관리자였던 나가노가 시민총대로 선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가지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여겨진 가미이즈미 사령관의 유임을 해군당국에 청원하였다. 곧이어 ‘진해학교조합’은 진해시민운동을 주최하여 진해 시가지의 선후책을 강구하고, 가미이즈미의 유임을 비롯한 해군당국에 요구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포함하여 가미이즈미의 유임을 해군당국에 다시 청원하게 된다. 이후, 총 네 명 중 ‘진해학교조합’ 평의원 세 명이 포함된 진해진정위원들은 해군차관 다카라베와의 회견을 통해 직접 진해 시가지의 상황을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가미이즈미의 유임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토지대여규칙’의 개정과 ‘창진철도’의 건설에 착수하는

167) 『朝日新聞』, 1912.07.22.

168) 『朝日新聞』, 1912.07.23.

것이 되었다.

‘진해학교조합’은 이 시기 토지대여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수행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진해 시가지를 대표하는 단체로 해군당국과 소통하며 그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제2절 일본인 시가지 발전과 함대 입항

‘진해학교조합’은 토지대여료와 조합비로 조합 재정의 기초를 닦았으며, 학교조합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진해 일본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제반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진해학교조합’은 총독부 아래의 지방행정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진해에서 행정주체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일본인 사회의 행정주체로서 활동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제국일본해군의 토지대여사업 제3차 시기인 1911년, 제국해군일본의 지원 하에 학교조합재산으로 약 진해 시가지 20만평과 산림 100만평을 무상에 가깝게 빌린 것이다.¹⁶⁹⁾ 이후 1912년까지 나타난 진해 시가지의 급격한 발전은 해군과 ‘진해학교조합’ 주도의 토지대여사업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가지 경제 상황은 가미이즈미 진해만방비대사령관이 1912년 7월 갑작스럽게 요코스카로 전임되는 것과 동시에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다. 가미이즈미 아래 진행되었던 토지대여사업에 참여한 많은 자본가가 가미이즈미의 전임 소식과 함께 진해에서 빠져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1년간에 15,000의 인구를 수용하여 남선의 수도를 형성한 진해시가 하루아침에 무방침(無方針)한 당국으로 인해 비참한 운명에 봉착하였다. 제일 민폐를 느끼고 있는 것은 진해에 투자했던 자본가로서 진해의 주민도 생계의 곤란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떠나 이제는 빈집만 해도 600호를 헤아려

169) 『朝日新聞』, 1912.03.04.

투신자, 자살자 등도 나타나고 있다. (후략)¹⁷⁰⁾

1911년과 1912년 동안 진해를 번성하게 했던 토지대여사업은 진해에 투자했던 자본가와 진해 시민들을 생계가 곤란할 지경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진해 시가지는 도시 건설 초기, 토지대여사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번성하였으나, 1912년을 지나며 점차 지속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14년 세계 1차 대전에서 일본이 칭다오(靑島)를 점령하여 조차지로 삼게 되자, 한층 더 심해졌다.

진해면의 내지인 가옥수의 현황을 보면 총 호수 2,617호 중 현주호수 1,488호 공가(空家)호수는 실로 1,129호라는 많은 수를 나타내며 총 호수의 약 반에 가까운 수를 보인다. 이것은 첫째, 시황부진과 함께 작년 말부터 칭다오열(靑島熱)에 이끌려 일시적으로 옮겨간 자들이 많아져서이다. 올해는 군항공사가 진척되고 함선 출입도 빈번해짐에 따라 이들 공가는 대부분 현주호수로서 계상되었다.¹⁷¹⁾

“칭다오열(靑島熱)”이라 불릴 정도로 칭다오로의 이주가 성황을 이루면서 진해의 일본인들 또한 칭다오로 이주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건설된 가옥 중에서 빈집이 “총호수의 약 반에 가까운 수”를 보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1915년 8월에 이르러 진해에는 예정되었던 진수부가 아닌 요항부(要港部)가 설치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진수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제반의 시설을 행해왔던 조선 진해만은 그 후 군사상 및 경제상의 관계로 요항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올해 4월 4일부터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정리 결과 진척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드디어 1916(大正5)년 4월에 요항부를 개설할 예정으로 이에 필요한 경비 약 200,000엔은 이미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다.¹⁷²⁾

이처럼 진해는 토지대여사업이 불황을 빚으며 침체가 계속되던 중, “군사상 및 경제상의 관계로” 1916년 4월 진수부보다 한 격 아래의 요항부를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가지의 불황을 타개할 방향을 다른 곳에

170) 『朝日新聞』, 1912.08.13.

171) 『釜山日報』, 1915.03.05.

172) 『読売新聞』, 1915.08.17.

서 모색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함대의 입항으로 1915년 진해 시가지에서는 “진해의 생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¹⁷³⁾ 그 경제적 효과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6〉 함대 입항과 해군 상륙의 경제적 효과

종별	환저금 (為替貯金)	수납·지불 (受拂)	특수우편 발착	소포우편 발착	전보	우표류수입 (切手類 收入)	
입항 전 1일 평균	113구	2536원	51통	22개	52통	44엔	
입항 후 1일 평균	164구	3533원	88통	30개	72통	66엔	
1일 평균 증가 수	51구	987원	37통	8개	20통	22엔	
1일 평균 증가비	45.13% 증가	39.31% 증가	72.55% 증가	36.37% 증가	38.46% 증가	50% 증가	평균 40.56% 증가

출전) 「○○입항과 진해 기사」, 『釜山日報』, 1915.04.17. ‘○○’는 원문표기 그대로 옮김.

위 표는 우편국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진해에서는 함대 입항을 전후로 한 하루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환 저축, 수납과 지불(受拂), 특수우편과 소포우편의 발착, 전보, 우표류 수입 등을 합하여 그 평균을 계산해보면 약 40.56%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함대의 입항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우편국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다. 함대가 입항했을 경우에 진해 시가지의 숙박업 또한 호황을 누렸던 것이다.

진해의 4월중 숙박인원을 조사하니 투숙 644인, 출발 592인, 체재 100인으로 이를 전월 투숙 159인, 출발 160인에 비교하니 494인이 늘어났다. 이는 다수의 함정이 입항한 결과로, 한동안 침체 속에서 괴로워하던 진해가 함정입항으로 각 방면에 상당한 호황활기를 보였다고 할 것이다.¹⁷⁴⁾

1915년 4월 진해 시가지에 다수의 함정이 입항하면서 그 전달에 비해 투숙은 305.03%, 출발은 270% 증가하여 침체되었던 경기가 호황 활기를 나타낸 것을

173) 『釜山日報』, 1916.01.18.

174) 『釜山日報』, 1915.05.23.

확인 할 수 있다. 함대 입항으로 인한 경제 부양 효과는 군항 진해만에 포함되어 있는 진해를 비롯한 마산 지역에서도 나타났다.¹⁷⁵⁾ 이처럼 함대 입항은 군항도시 진해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며 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등장하였다.

활살의 열쇠는 해군에게 있다 - 원래 항만은 수륙 교통기관의 전환소, 화물의 집산소, 선박승조원의 안식처이며 따라서 금전유통이 빈번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자칫하면 풍속이 퇴폐함을 면하기 어려움과 동시에 인정이 쾌활한 것으로 한 지방의 생기는 모두 이에 의해 야기된다. 따라서 진해와 같이 경제생활구역이 협소한 지방은 수요의 신축적 성질이 적어서 주요이입화물의 증감도 그 가격 등락의 주원인이 된다. 특히 진해와 같이 수동적 항만이거나 그 시가 건설이 해군의 힘에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에 좌우되는 것이 당연하며 진해를 항만적 요소를 분해관찰하면 함대와 진해 시가의 관계여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그 상황도 또한 쉽게 이해될 것이다. 진해성쇠의 여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활살의 관건은 해군에 있고 함대에 있다고 운운 모 유력자는 기자에게 말한다.¹⁷⁶⁾

위에서는 “진해와 같이 수동적 항만이거나 그 시가 건설이 해군의 힘에 의존하고 있거나 그 힘에 좌우되는 것이 당연” 하므로, 함대 입항이 시가지 경제에서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이어서 진해 시가지의 “활살의 관건은 해군에 있고 함대에 있다” 고 하며 함대 입항을 중심에 둔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진해 시가지는 1911년에서 1912년까지 해군과 ‘진해학교조합’의 토지대여 사업으로 번창하였으나, 가미이즈미 방비대 사령관의 전임 이후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불황과 침체가 계속되던 가운데 1915년에 이르러 진해 시가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던 중 함대 입항의 경제적 효과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진해 시가지에서 함대 입항이 진해의 발전과 직결되어 중요하다고 여겨지자, ‘위생’의 중요성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진해에서 위생 강화는 음료수와 같은 식품 위생부터 풍기 단속 등에 이르기까지 해군을 비롯한 경찰서, 시가지의 다양한 조합에서 나타났다. 아래는 진해 시가지에서 함대 입항과 관련하여 식품 위생

175) 『釜山日報』, 1915.07.01., 『釜山日報』, 1915.07.10., 『釜山日報』, 1915.08.07.

176) 『釜山日報』, 1915.06.10.

의 강화를 나타내는 기사이다.

(전략) 오는 25일 경, 입항할 제2함대는 갑작스런 변고가 없는 이상, 9월 무렵까지 체박(滯迫) 할 것이며 하계위생 단속은 매우 엄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판매자(필자: 음료수 판매자)는 부패물은 폐기하고 라무네, 사이다와 같은 것에 기간이 경과된 것은 수시로 이를 바꿔두지 않으면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들 업자들은 각자 크게 유의해야 할 것이다.¹⁷⁷⁾

‘진해의 음료수 단속’이란 제목의 위의 기사에서는 1915년 5월 25일에 입항하는 제2함대가 9월까지의 진해에 체박할 것이며 그에 따라 “하계 위생 단속이 매우 엄중”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패물은 폐기하고 라무네, 사이다와 같은 것에 기간이 경과된 것은 수시로 이를 바꿔두지 않으면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주의해야 할 목록과 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해 시가지에서는 함대 입항을 중심으로 위의 음료와 같은 식품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더불어 풍기위생에 대한 단속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진해경찰서에서는 1일 오후 1시부터 시내 여관업자, 음식업자 일동 및 요리점 조합의 정·부조장(正副組長)을 소집하고 현재 다수 함정이 체박(滯迫)하여 가끔 병원(兵員)이 상륙하여 숙박할 때가 되면 더욱 풍기위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안도(安藤) 동 서장이 간곡히 훈시하였으며 구로이와(黒岩) 방비대군의장도 임석하여 일장의 주의를 당부하였다고 한다.¹⁷⁸⁾

위의 기사와 같이 1915년 6월 진해경찰서에서는 ‘진해풍기위생단속’이라는 이름으로 병원(兵員)의 상륙과 숙박에 대비하여 진해 시내 숙박·음식점 업자 등을 소집하여 “더욱 풍기위생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며 훈시를 행하였다. 이 자리에는 경찰서장뿐만이 아니라, 진해만방비대 군의장이었던 구로이와(黒岩)도 참여하여 직접 훈시를 행하였던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풍기 단속 훈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7) 『釜山日報』, 1915.05.25.

178) 『釜山日報』, 1915.06.04.

<풍기단속훈시개요>

1.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 주의할 것.
2. 하수변소의 청결을 도모할 것.
3. 파리가 앉지 않도록 장치를 할 것 .
4. 조리장의 조리물은 조리 때마다 뚜껑을 덮어둘 것.
5. 요리점에서는 가급적 세척한 용기를 사용할 것.
6. 여인숙(宿屋), 하숙집(下宿屋), 음식점(飲食店)의 부녀(婦女)단속을 엄격히 하여 외설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7. 하숙집조합(下宿屋組合)을 설치하여 위생, 풍기 그 외 제반 단속에 노력할 것.
8. 위생풍기교정을 위해 각 조합에 시찰원을 두고 부정행위가 있는 영업자 및 고용된 여자(雇女)등이 있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할 것.¹⁷⁹⁾

함대 입항을 둘러싸고 진해 시가지에서 제국일본해군과 경찰이 함께 행하였던 훈시는 8개의 주의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식물과 수질, 풍기 등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8번째 항목에서 다양한 조합에 위생풍기교정을 위한 시찰원을 두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점은 진해 시민들의 전반적인 참여를 요하는 부분으로 진해 시가지에서 위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진해 시가지의 위생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모습은 진해 경찰서와 같은 행정기관뿐만이 아닌, 진해 이발 조합이나 진해 음식점동업자 조합 등에서도 나타났다. 1915년 6월 17일의 진해 이발 조합 총회에서는 풍기위생에 대한 사항을 강연하며, 사업의 대 진전을 기도한 모습이 눈에 띈다.¹⁸⁰⁾ 또한 같은 달 20일의 진해경찰서에서 개최한 ‘위생에 관한 훈시’에서는 경찰서장의 풍기 및 위생 단속의 훈시 도중, 요리점 주인들이 각종의 합의를 사항을 보고하기도 하였다.¹⁸¹⁾ 이후 다음 달인 7월 18일의 진해 음식점동업자 조합에서 개최한 조합임시총회에선 “때가 때인 만큼” 손님에게 제공할 음식물에 대해 협의하는 등 위생 강화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¹⁸²⁾

179) 『釜山日報』, 1915.06.06.

180) 『釜山日報』, 1915.06.17.

181) 『釜山日報』, 1915.06.20.

182) 『釜山日報』, 1915.07.18.

1915년에 이르러 진해 시가지는 시가지의 발전과 직결된 함대 입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위생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인다. “다수의 시민들이 함대의 입항과 군인의 상륙을 통해 생계를 영위” 하게 된 진해 시가지에서 “진해시의 성쇠는 실로 시가지의 위생상태의 좋고 나쁨(良否)에 따라 지배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¹⁸³⁾ 진해에서 ‘진해위생조합’이 등장한 것은 이처럼 위생이 시가지의 발전과 직결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1916년 4월의 일이었다. 기존의 진해 일본인 사회에 존재했던 ‘진해위생회’가 개칭하여 탄생한 ‘진해위생조합’은 시의 위생시설을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였다.¹⁸⁴⁾

1916년 ‘진해위생조합’의 등장은 함대 입항이 시가지의 사활을 건 문제로 떠오른 상황과 연동하여 ‘진해학교조합’이 1914년 ‘학교조합령’ 개정령에 의해 위생 사업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특히 이 ‘진해위생조합’은 조합장과 부조합장,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16년에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과 관리자이던 마쓰오와 오쓰보가 각각 조합장·부조합장이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쓰나리 구보키치(光成久吉), 노자키 쓰네조(野崎常藏), 히사토미 데쓰이치(久富鐵一)의 다섯 명은 ‘진해학교조합’에 속해 있으면서, ‘진해위생조합’에도 속해 있었다.

1916년 이후 진해 시가지 발전이 함대의 입항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진해위생조합’은 보다 더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중심에 ‘진해학교조합’의 학교조합 관리자였던 오쓰보와 조합 평의원으로 진해 유력자인 마쓰오가 존재했던 점은 ‘진해위생조합’과 ‘진해학교조합’의 구성원들이 진해 시가지의 발전이란 문제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네트워크를 조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1915년 이후 시가지의 발전과 관련된 위생문제와 ‘진해위생조합’, 그리고 ‘진해위생조합’과 ‘진해학교조합’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183) 『釜山日報』, 1916.02.22.

184) 『釜山日報』, 1916.04.05. 이 기사는 ‘진해위생회’가 ‘진해위생조합’으로 개칭한 것을 알리고 있다.

제4장 결론

이상으로 1910년대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 진해 건설과정에서 진해 시가지를 둘러싼 제국일본해군, 총독부, 일본인 사회의 상관관계를 교육을 비롯한 도시경영 상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진해학교조합(鎭海學校組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제국일본해군은 20세기 초 청일·러일전쟁을 통한 제국영역확장 과정에서 지정확적인 이점을 지닌 진해만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점령하게 되었다. 러일전쟁을 통해 제국주의노선을 확실하게 한 제국일본해군은 진해만에 식민지 군항도시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1907년에서 1910년 사이, 한반도 침략과 맞물리며 진해만에 군항도시건설의 기반을 닦았다. 이 시기, 군항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진해군항시설지설지조사보고’가 ‘진해만시설조사위원’들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해군은 진해만을 해군용지로 수용하며 그 안에서 군항시설 지역과 시가지 지역을 각각 직접경영과 토지대여를 통한 간접경영의 방식으로 나누고자 하였다. 이는 진해군항이 진해만을 중심으로 그 연안 일대 등을 합해 무려 13,120,000평의 땅을 포함한 대규모였던 것에 기인한다. 1910년 대한제국이 식민지로 전략하게 되며 진해는 제국일본해군의 군항도시로서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 전체가 식민지가 된 이후,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제국일본해군의 전략 방향은 일본국방전략의 변화에 따라 남쪽으로 바뀌게 되었다. 동시에 일본 내부의 경제 상황과 맞물리며 진해군항계획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견이 드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러일전쟁 당시와 비교하여 진해만이 그 전략적 가치가 떨어졌고, 일본 내부도 거듭된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자금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해만에 있던 진해만방비대사령관 가미이즈미 도쿠야(上泉德弥)

해군 소장에 의해 군항건설은 진해만 토지대여사업을 수단으로 속도를 내게 되었다. 진해 군항의 배후지였던 시가지는 1911년에서 1913년까지 일본인 인구가 90% 이상인 일본인 사회였다. 이 시기, 진해 시가지는 토지대여사업에 근거하여 시가지를 개발해나가며 군항도시로서 그 물리적인 형태를 잡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는 한반도에 관한 일본의 지위가 통감부에서 총독부로 변하며, 지방의 행정주체가 불명확했던 때로 진해를 둘러싼 행정주체도 불분명하였다. 1911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조선 전체를 식민지로 삼게 되자 총독부는 진해만의 관할권을 두고 해군성과 논의를 벌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1912년에는 직접적인 군항지역을 제외한 진해 시가지의 관할권이 총독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복잡한 시기, 진해 시가지를 발전시켜온 해군의 토지대여사업을 ‘진해학교조합’이 전대하는 형태로 등장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신도시인 군항도시 진해의 건설로 이 지역에 갑자기 일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일본인 아동의 교육을 목적으로 진해에 세워진 단체였다. 교육목적으로 설립된 ‘진해학교조합’은 교육 사업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부대사업을 행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으로부터 진해 시가의 3분의 2에 달하는 토지를 무상에 가깝게 대여하여 전대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또한 진해에는 여타 개항도시에 거류민단이 형성되어 일본인 사회의 발전을 주도했던 것과 달리,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인구가 급증한 곳이므로 거류민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대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시가지의 실질적 경영주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진해학교조합’은 학교조합회라는 의결기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진해학교조합’은 총독부 아래의 지방행정체계가 갖추어지기 전까지 진해에서 실제 행정주체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과 학교조합관리자는 시가지의 유력자들로 진해 시가지의 다른 민간단체인 ‘진해번영회’와 ‘진해위생조합’에도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이었다.

1912년까지 나타난 진해 시가지의 급격한 발전은 해군과 ‘진해학교조합’ 주

도의 토지대여사업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토지대여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된 군항도시 진해의 발전 규모와 속도는 해군성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었다. 일본국방전략의 방향이 바뀔과 동시에 제국일본해군의 방향 또한 바뀌면서 진해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토지대여사업에 근거한 군항도시 진해의 급격한 발전이 해군성에 알려지게 된 1912년 7월, 이 사업의 중심에 있던 가미이즈미는 요코스카로 전임되었다. 이 영향으로 가미이즈미를 중심으로 토지대여사업에 참여한 많은 자본가가 진해에서 빠져나가게 되었다. 따라서 진해 시가지는 급속히 쇠퇴하여, 1914년까지 그 침체는 계속되었다.

진해 시가지에서 해군이 사령관의 전임문제로 갈등을 겪는 시기에 ‘진해학교조합’은 그 시가지 대표이자 중재자로 등장하였다. 진해 시가지의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진해학교조합’은 임시회의를 개최하였고, 시민대회를 통해 선후책을 강구하며 그 정책을 해군당국에 직접 청원하였다. ‘진해학교조합’은 이 시기 토지대여사업을 기초로 교육·위생·토목 등 도시제반 사업의 담당뿐만 아니라, 진해 시가지를 대표하여 해군당국과 소통하며 그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시가지의 활로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러나 1914년 세계 1차 대전에서 일본이 칭다오(淸島)를 점령하게 되면서 ‘칭다오열’이라 불릴 정도의 건설 경기가 칭다오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 시기 진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칭다오로 이동하게 되었다. 결국 1915년 8월 제국일본해군은 진해 군항을 요항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 시기, 군함의 입항이 시가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미친다는 것을 진해 시가지에서는 파악하여, 함대입항에 위생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해 시가지에서는 ‘위생’ 개념을 강화하여 군함입항을 통해 시가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진해 시가지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해 일본인 사회의 동력기반은 토지대여사업에서 ‘위생’을 바탕으로 둔 함대입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진해위생회’가 1916년에 ‘진해위생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등장하게 된다. ‘진해위생조합’은 제국일본해군을 비롯한 경찰서, 진해의 상업과 관련된 조합들과

함께 위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진해위생조합’에는 ‘진해학교조합’에 있던 인물들이 다수 포진해있었을 뿐만 아니라, 1916년 ‘진해학교조합’의 평의원과 관리자이던 마쓰오와 오쓰보가 각각 조합장·부조합장을 맡고 있었다. ‘진해학교조합’의 구성원들이 ‘진해번영회’를 비롯한 ‘진해위생조합’의 일원을 겸하고 있는 점은 ‘진해학교조합’이 진해 일본인 사회의 주체로 자리 잡고 인적·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군항도시 진해에서 나타난 일본인 사회, 즉 진해 시가지는 제국일본해군의 국방 방침과 그 전략 변화와 연동하여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식민지 지방통치체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이 시기, 민간단체인 ‘진해학교조합’이 시가지 경영을 도모한 점은 신도시이자 군항지의 배후지라는 데 기인한 군항도시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또한 ‘진해학교조합’에서 구성된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와 해군이 연동된 가운데 ‘위생’을 중심으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간 점 역시 군항도시의 특징으로 생각된다.

1915년 이후 진해 시가지 발전과 관련되어 등장한 위생문제와 ‘진해위생조합’은 군항도시에서 나타난 제국일본해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해 보다 심도 있게 고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는 진해에서는 ‘위생’으로 대표된 해군의 다양한 전문지식이 근대세계의 형성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별표2> 1911년-1922년 진해인구통계

연도	지역구분	일본인					조선인					소계				합계	일본인(%)
		주택수(호)	인구수(명)①	인구수(명)②	인구/남(명)	인구/여(명)	주택수(호)	인구수(명)	인구/남(명)	인구/여(명)	주택수(호)	인구수(명)	인구/남(명)	인구/여(명)			
1911	진해	1,210	3,519	3,519	2,223	1,296	19	46	-	-	1,229	3,565	-	-	3,565	99%	
1912	진해	1,803	5,038	5,038	2,374	2,664	-	-	-	-	-	-	-	5,038 ↑	-		
1913	진해	1,765	5,988	5,988	3,347	2,641	129	729	523	206	1,894	6,717	3,870	2,847	6,717	89%	
1914	진해	1,327	4,511	4,828	2,263	2,248	46	311	187	124	1,373	4,822	2,450	2,372	8,563	56%	
	경화동	99	317		170	147	678	3,424	1,723	1,701	777	3,741	1,893	1,848			
1915	진해	1,299	4,642	4,947	2,353	2,289	44	259	136	123	1,343	4,901	2,489	2,412	8,609	57%	
	경화동	86	305		155	150	661	3,403	1,732	1,671	747	3,708	1,887	1,821			
1917	진해	1,188	4,584	4,873	2,338	2,246	97	415	246	169	1,285	4,999	2,584	2,415	9,266	53%	
	경화동	79	289		149	140	834	3,978	2,105	1,873	913	4,267	2,254	2,013			
1919	진해	1,047	3,948	4,184	1,916	2,032	89	441	266	175	1,136	4,389	2,182	2,207	8,480	49%	
	경화동	65	236		117	119	825	3,855	2,031	1,824	890	4,091	2,148	1,943			
1920	진해	1,009	3,802	4,024	1,860	1,942	145	565	328	237	1,154	4,367	2,188	2,179	8,371	48%	
	경화동	61	222		108	114	809	3,782	1,924	1,858	870	4,004	2,032	1,972			
1921	진해	1,179	4,505	4,799	2,211	2,294	165	665	372	293	1,344	5,170	2,583	2,587	9,597	50%	
	경화동	82	294		143	151	862	4,133	2,126	2,007	944	4,427	2,269	2,158			
1922	진해	1,121	4,302	4,641	2,091	2,211	165	804	378	426	1,286	5,106	2,469	2,637	9,596	48%	
	경화동	87	339		161	178	824	4,120	1,960	2,160	914	4,490	2,121	2,338			
	경화동(중국인)	3	31	-	31	-	-	-	-	-	-	-	31	-	-	-	

출전) 1911년도부터 1913년도까지는 ‘진해학교조합’에서 시행한 인구조사를 토대로 하였으며, 1914년부터 1922년까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이상 통계청 자료제공, www.kostat.go.kr.) 지역구분에서 나타난 ‘진해’는 진해 시가지인 ‘현동(縣洞)’을 뜻하는 것이며 일본인 지역이었다. 한편 ‘경화동(慶和洞)’은 시가지 주위로 격리된 조선인 지역이었다.

<자료1> 진해만해군용지대여내규(鎭海灣海軍用地貸下內規)

출전) 『鎭海永興關係書類』, 8-8.

제1조 진해만해군용지에 있어서 논(水田),밭(田) 또는 염전(塩田)은 해군에 지장 없는 기간 종래 해당 토지 상에 소유권을 가지며, 耕作業이나 塩業에 종사하는 자 또는 소유권은 없으나 借地權을 갖고서 耕作業이나 塩業에 종사하는 자는 우선 이를 借用 할 수 있음.

제2조 앞 條에 의해 토지借用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지시하는 기한 이내에 본 내규에 의해 토지의 借用을 本隊에 출원하여 허가를 받을 것. 만약 기한 내에 출원을 할 수 없을 때는 해당 권리를 拋棄하는 것으로 간주함.

제3조 토지借用의 출원자는 종래 현재 耕作業이나 塩業에 종사하는 지역에 한해 출원할 수 있는 것으로 함. 단 제2조에 의해 권리를 拋棄한 자의 지역 또는 借地權者가 없는 지역에서 借用을 출원하는 자 있을 때는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출원의 순서에 따라 貸下를 허가함.

제4조 토지借用의 출원자는 제1호 書式에 따라 保證人 連署 위 願書를 낼 것. 단, 本隊에서 제1조의 우선권 證明을 필요로 할 때는 洞長의 保證 그 외의 방법으로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제5조 借地人은 耕作 또는 塩業 이외의 목적으로 借用地를 사용할 수 없음. 단, 특별히 허가를 얻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제6조 진해만해군용지의 借地權은 讓渡 또는 轉貸 할 수 없음. 단, 借地人 사망 등으로 인해 正當상속인에게 繼承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앞 項의 경우 繼承者는 상속개시의 사실 및 正當상속인임을 洞長의 보증으로 증명할 것.

제7조 借地人이 그 借用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제2호 서식에 의해 願書를 本隊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것.

제8조 해군에서 토지를 반환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는 통례 6개월 이전에 借地

人에게 예고를 하고 전부 또는 일부의 토지를 반환케 함. 단, 형편에 따라 本條의 예고를 행하지 않고 바로 반환을 명할 수 있음.

앞 項의 경우 借地人이 損害를 입게 될 때는 해군에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배상함.

제9조 借地人은 허가없이 토지에 영구적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변경을 가할 수 있음. 그러나 허가없이 행한 것은 반환 시에 원형으로 복구시키거나 또는 그 손해를 배상시킬 수 있음.

제10조 貸下 중 한국정부에 대한 地租 및 기타 課稅를 납입해야 할 경우는 모두 借地人의 부담으로 함.

제11조 借地料는 年額 한 坪에 대하여 논(水田)에는 1錢, 밭(田)에는 5厘, 염전(塩田)은 2錢으로 정함.

제12조 借地料는 매년 12월 本隊가 지정하는 장소 및 기일에 납부케 함. 단 1년 미만일 때는 월별로 나누어 이를 계산함.

앞 項 借地料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一洞分을 모아서 해당 洞長 앞으로 이를 보내는 것으로 함.

제13조 借地料 납부를 게을리 하거나 독촉해도 응하지 않을 때는 貸下地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滯納한 借地料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납부케 함.

앞 項에 의해 토지반환을 명받은 자는 이후 다시 해군용지를 차용할 수 없음.

제14조 水旱害 및 기타 天災 등에 의해 현저하게 수확이 줄어든 사실이 있을 때는 특별히 借地料를 경감·면제할 수 있음.

단 상기 피해지 복구공사에 요하는 비용은 借地人이 부담함.

제15조 借地人은 아래의 각 항을 준수해야만 함.

1. 借地 내에 있는 立木鑛物 및 기타 埋藏物은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없음.
2. 吏員을 파견하여 토지의 실황을 조사하거나 또는 공사 측량을 할 때는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제16조 위 諸條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또는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아 借用地를 荒廢하게 한 자는 토지반환을 명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게 함.

참고문헌

<자 료>

『신사명감』 『朝鮮功勞者銘鑑』 『朝鮮銀行會社要錄』

『朝鮮總督府官報』 『統監府公報』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鎮海永興關係書類』 『明治四十三年』 (이상 아시아역사자료센터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웹사이트.)

『朝鮮·台灣·樺太·關東州ノ地方制度概要』, 拓務省管理局, 1930.

[신문]

『釜山日報』

『朝日新聞』

『読売新聞』

『東京時事新報』



<저 서>

김대상, 『부산·경남 언론사 연구』, 대왕문화사, 1981.

김동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성』, 도서출판 혜안, 2006.

김운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p.214.

손정목, 『韓國開港期 都市社會經濟史 研究』, 일지사, 1982.

_____, 『日帝強占期 都市計劃研究』, 일지사, 1990.

스즈키 마사유키 저, 류교열 역,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이와나미 신서 편집부 저, 서민교 역, 『일본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문학사, 2013.

- 진해시사편찬위원회, 『鎭海市史』, 1991.
- 하라다 게이이치 저, 최성환 역,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2012.
- 홍순권 외, 『부산의 도시형성과 일본인들』, 선인, 2008.
- 황정덕, 『鎭海市史』, 鎭海郷土文化研究所, 1987.
- 후지와라 아키라 저,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上) 戰前篇』, 에이앤씨, 2012.
- 荒山正彦·大城直樹 編, 『空間から場所へ 地理学的想像力の探求』, 古今書院, 1998.
- 岡萬吉, 『鎭海要覽』, 騰龍閣, 1926.
- 大江志乃夫, 『日本の參謀本部』, 中央公論社, 1985.
- 高秉雲, 『近代朝鮮租界史の研究』, 雄山閣出版, 1987.
- 杉山萬太, 『鎭海』, 鎭海印刷社, 1912.
- 竹国友康, 『ある日韓歴史の旅:鎭海の桜』, 朝日新聞社, 1999.
- 橋谷弘, 『帝国日本と植民地都市』, 吉川弘文館, 2004.

[학위논문]

- 김선희, 「일제 강점기 진해지역 일본인의 생활상」,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0.
- 김인수, 「진해의 도시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근대 건축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4.
- 조미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교조합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0.

<논 문>

- 김대래·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부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연구 Vol.10 No.2』,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 김백영, 「식민지 시기 한국 도시사 연구의 흐름과 전망」, 『역사와 현실 No.81』, 2011.
- 류교열, 「근대 일본의 「해양진출론」과 최근의 「해양국가」 구상」, 『日語日文學研究 vol.52 No.2』, 韓國日語日文學會, 2005.
- 박기식·우신구, 「진해시 도시 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 시대별 경관요소 분석을 중심으

- 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8 No.1』, 2008.
- 박양신, 「제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과 해체-러일전쟁 이후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과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 『아시아문화연구 Vol.2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 송지영, 「일제시기 부산부의 학교비와 학교조합의 재정」, 『역사와 경계 Vol.55』, 부산경남사학회, 2005.
- 이정복, 「일본신문의 정치적 특성 : ‘조일(朝日)’, ‘독매(讀賣)’, ‘매일(毎日)’ 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Vol.2 No.1』, 1986.
- 이학수, 「진해 군항의 탄생」, 『국제해양문제연구 Vol.7』, 2012.
- 조미은, 「일제 강점기 일본인 학교조합 설립 규모」, 『史林 Vol.22』, 수선사학회, 2004.
- _____, 「일제시기 재조선 일본인 학교조합제도의 변천과 성격」, 『史林 Vol.21』, 수선사학회, 2012.
- 조홍석·구명화·김정동, 「진해지역 근대건축물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ol.19 No.4』, 2003.
- 허정도, 「일제에 의한 진해신도시계획의 식민성 고찰」, 『人文論叢 Vol.28』, 2011.
- 홍순권, 「일제시기 ‘부제’의 실시와 지방제도 개정의 추이 : 부산부 일본인사회의 자치제 실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Vol.14』, 2004.
- 千須和富士夫, 「日本軍港制度の研究」, 『広島商船高等専門学校紀要 第17号』, 1995.

<기 타>

-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 (<http://gb.nl.go.kr>)
- 통계청 (www.kostat.go.k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www.jacar.go.jp)
- 近代デジタルライブラリー (<http://kindai.ndl.go.jp/>)